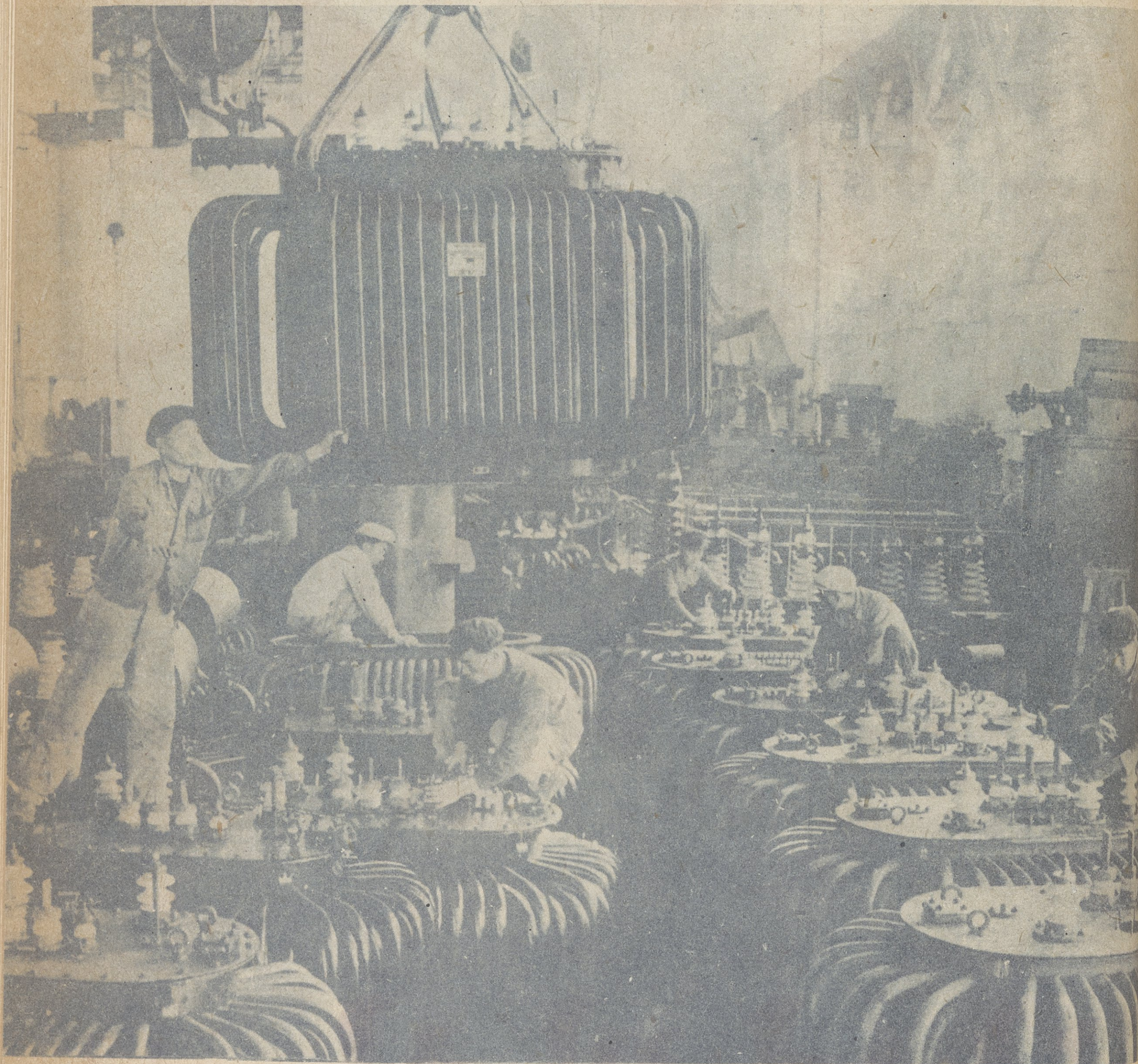


청년생활

12
1962



대안 전기 공장 변압기 직장 림 병규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받들고 대형 변압기 조립 작업에서. 매일 계획을 150 % 이상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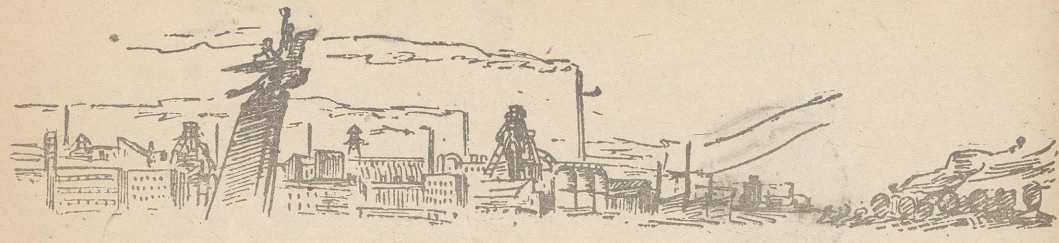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59)



12
1962



차 례

장편 소설 **서 광** (제2부중에서) …………………… 박 달(5)

(시) 한 해를 보내는 노래 …………………… 리 효운(4)

지상강좌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투쟁 (2) …………………… 최 북성(23)

성격과 수양 …………………… 황 영식(32)

(시) 빵의 노래 …………………… (큐바)니꼬라스길리엔(35)

(시) 115 대대 기관총 중대의 노래 …………………… (35)

혁명 연극 …………………… 리 상태(39)

영광의 대오에 근위 기'발 휘날린다 …………………… 한 희만(28)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본받자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 낼 일이 없다》 …………………… 박 영순(11)

용감한 4 명의 공병 돌격대 …………………… 최 창운(16)

대담한 영웅들 …………………… 하 만춘(20)

력사 이야기 의병 대장 홍 범도 …………………… 최 운학(36)

생활과 일기 …………………… 윤 시철(44)

독자 문예 차 표 …………………… 한 동국(42)

독자 문예 편 지 …………………… 박 동선(43)

독자 문예 새집에 들다 …………………… 정 룡순(42)

겨울철의 육체 단련 …………………… 함 철린(47)

표지; 1면, 농촌 청년들이여! 모두다 뜨락또르 운전 기술을 배우자!

(시)

한해를 빛내는 노래

리 효운

시뻘건 쇠'덩이를 무쇠로 다지며
지동치는 압연기의 기대를 틀어 쥐고
홍겹고 맑은 새 노래 키워 왔노라
젊어 피 끓는 날과 달을 지내 왔노라!

등대로 솟아 세기를 비쳐인 당을 따라
수천만 심장의 홰'불 든 수령님 모시고
번개와 폭풍 가르며 전투로 지샌
아 얼마나 보람찬 새벽과 밤 흘렀느냐…

붉은 심장마다 활활 타는 불을 달구며
온 조선 인민이 하나로 뭉치여
푸르른 정기 번쩍이는 창조의 지혜 고누며
불패의 대오로 돌격한 여섯 개 고지—

백두에 솟은 붉은 기 받들어
당이 펼친 조국의 동 터오는 미래로
불'덩이 되여 뚫고 심산준령 넘어
누리에 자랑하는 영웅 고지에 올랐노라!

대안과 숙천에서 그이가 안겨주신
위대한 전투 명령 가슴에 새기고
조국의 강철 기둥 총창처럼 벼리며
기계—대군단의 가락 타고 왔노라!

우리 로동 계급의 악수를 보내노라!
간곳마다 청산리요 숙천군인 금수강산
500만 톤 전선에 만풍년의 북을 치며
세인을 놀래우는 황금'벌의 주인들

협동 농장 형제들께 우리의 악수를!
행복이 구슬로 웃음에 맺힌 인민들께
무지개 아롱진 천파 비단 고지를
꽃처럼 안겨준 천리마 기수들께

만리 창파 산같은 격랑 넘어
80만 톤 풀풀 뛰는 생선 떼를 선물한
바다의 용사들께 전우의 인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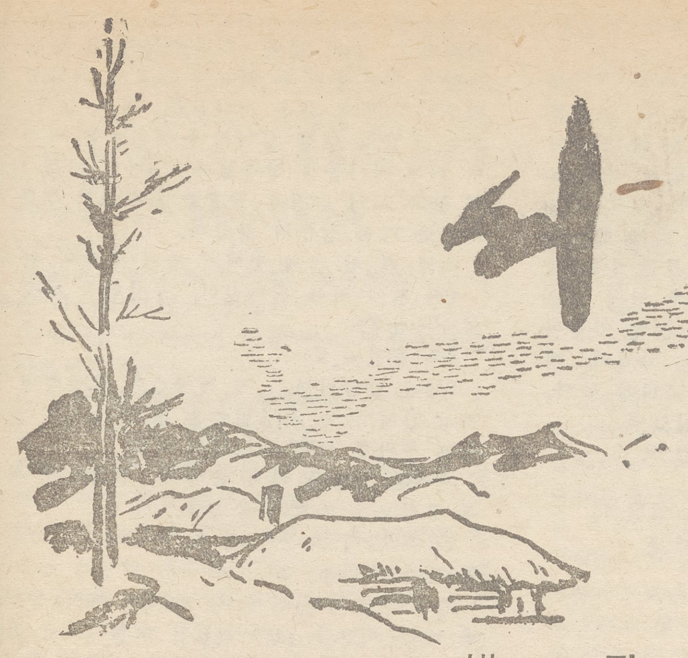
수천년 농민들의 꿈'자리를 헤치고
황금의 산파 벌에 고래같은 기와집들
로동당 우리 시대 기상을 담은
기념비를 쌓아 올린 건설자 동무들께
막장 마다 싸움 벌려 공업의 밥을
푸느라고 수고하는 지하의 형제들께

뜨거운 동지적 성원을 보내노라!
당과 수령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
하나로 숨 쉬는 이 붉은 전선에서
아, 우리는 얼마나 가슴 불태웠던가!
창조로 빛나는 이마를 마주 대며
붉은 지령을 우리 힘으로 수행하여 왔노라!

천리마 영웅들이 차지한 고지 우에
1962년 월계관을 얹어 쓰고
자력 갱생의 붉은 기 훨훨 날리며
우리의 어버이—당 중앙에 달려갔다.
저 높은 상상봉에 솟아오르는
태양 속에 번쩍이는 7 개 년 봉우리!
더 거창하였고 장엄한 대전투에로
당이 부르는 새 돌격을 준비한다.

시뻘건 무쇠'덩이 소용도리치는 전투장
우리는 여기에서 신들메를 조이고
사회주의 전선에 보낼 무쇠'덩이를
다져내는 전투에로 우리는 나아간다.

(1962년 12월)



서광

제2 부 중에서

박 달

전호에서 계속

어느 날이였다. 성호는 기결감으로 나가기 전에 금숙을 한번 더 만나 보고 싶어 편지를 한 장 쓰겠다고 담당 간수에게 청원하였다. 저녁 때 간수는 편지 집필을 승낙하며 편지를 씌우기 위해 내여 놓았다. 전에는 대개 중앙 복도 한 쪽에서 씌웠는데 오늘은 저쪽 채 감방 문을 열더니 들어가 쓰라고 했다. 그리고는 문을 철컥 잠궈 버렸다. 성호가 보니 감방 안에는 아무 것도 없고 복판에 책상 한 개와 걸상 그리고 상 우에는 먹집과 끝이 뭉툭한 붓한 자루가 있었다. 편지지인 봉함 엽서는 담당 간수가 주어 성호가 들고 들어 갔다.

성호는 걸상에 앉기 전에 뒤로 난 유리창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그 때 마침 마주 보이는 감방 뒤'창에 사람의 얼굴이 우렷이 떠 올랐다. 성호는 누군가 싶어 창으로 바짝 다가서며 한 쪽 창을 열었다. 그 때 저쪽에서도 한 쪽 창을 열었다. 철망을 통해 바라보니 그것은 의외에도 권 벽 동무가 아닌가! 창과 창 사이는 5 메터 거리 밖에 안 됐다. 중앙에서 갈라지는 두 사의 첫 방이기 때문에 거리가 그렇게 가까왔다. 권 벽 동무는 성호를 먼저 알아 보았는지 빙긋이 웃고 있었다. 성호는 말할 수 없이 반가와 손을 쳐들었다.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권 벽이도 손을 들어 흔드는데 사형수라 외연 수쇠를 차고 있어 두 손을 다 들어 흔들였다. 성호는 그것을 보자 불시에 마음이 흐려졌다.

《괜찮습니다. 동지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권 벽의 말이였다.

《나야 건강합니다. 언제부터 그 방에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 또 이리로 옮겼습니다.》

《다른 동지들은요?》

《자주 방을 옮기다 보니 서로 행방조차 모르겠습니다.》

사형 집행 날'자만 기다리는 사형수들은 이렇게 자주 방을 옮긴다는 말을 들은 성호는 불현듯 마음이 언짢아졌다. 목이 메이는듯 말이 얼른 나오지 않았다. 권 벽의 얼굴에서 웃음이 가시더니 이렇게 나직히 말했다.

《동지! 동지들만이라도 살아서 좋은 사회를 창건하는데 참가하게 되였으니 참 기쁘오. 나는 그것을 조금도 도와 주지 못 하게 되였으니 안타깝기만 하오. 김 일성 동지를 만나 뵈옵거던 나의 거듭되는 문안과 축하를 전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부탁은 내 아들 권 룡을 잘 교양하여 나 대신 국가 일을 많이 시켜 주시요. 안녕히…》

마침 그 쪽으로 간수가 오는지 고개를 기웃해 보이고는 이내 저 쪽으로 돌아서 앉아 버

렸다.

성호는 그만 목이 메였다. 창턱에 머리를 댄 채 이마를 비비며 한참 서 있었다. 편지를 쓸 기맥조차 없어졌다. 성호는 좀 더 얼굴이라도 오래 볼려고 다시 창에 매달려 내다 보나 권 벽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성호는 몇 번이고 권 벽을 불러 일어 서게 할가 했으나 권 벽의 괴로운 심정을 미루어 부를 수도 없었다. 성호는 행여나 또 권 벽이가 일어 서나해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권 벽은 진정 마음이 괴로워서인지 다시는 일어 나지 않았다. 이때 문 앞으로 간수가 다가 오는 소리가 났다. 성호는 얼른 돌아 서며 걸상에 앉았다.

간수는 덜그럭거리며 문을 열었다.

《다 썼으면 나와.》

성호는 백지를 펼쳐 놓고 앉아 있었다.

《담당님, 편지를 못 쓰겠습니다.》

성호가 말했다.

《왜?》

간수가 물었다.

《무기 징역을 받고 무슨 반가운 소식이라고 편지가 써집니까.》

성호가 이렇게 둘러 댔다.

《그럼 할 수 없지 나와.》

성호는 자기 방으로 돌아 왔다. 감방에 와서도 오래오래 권 벽의 마지막 순간의 얼굴 모습이 눈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1944년, 감방 뒤 운동장 옆에는 돌연 공사가 버러졌다. 수백 명의 기결수들이 언 땅을 파느라고 법석들 하고 있는데 성호가 가만히 내다보니 방공호 같은 지하실을 파고 있다. 성호는 공습이 점점 심해지니 대피호를 파나 보다 하고 례사롭게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가만히 두고 보니 그것은 방공호라기 보다 무슨 지하실을 파는 잡두리 같았다.

저녁 때 서 경직 방에서 급히 통방이 왔다.

《저 뒤에 파는 지하실이 무엇인지 소식 들었습니까?》

《못 들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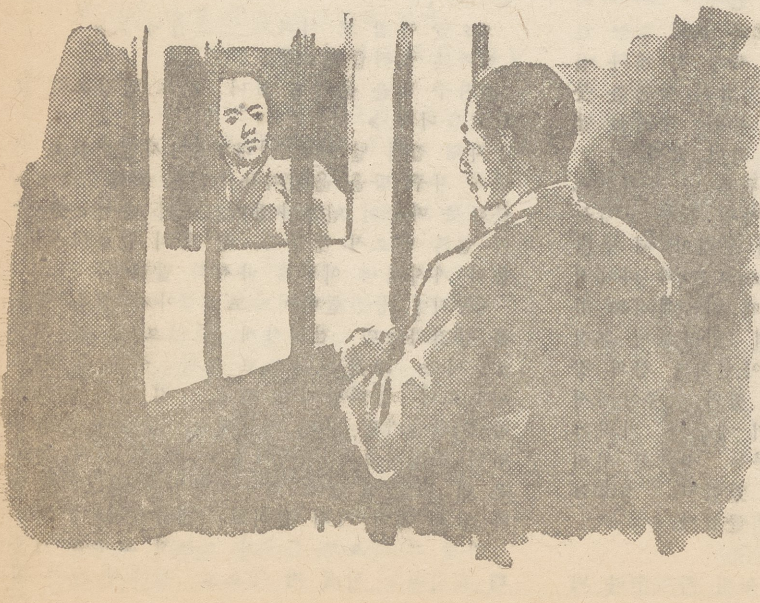
《야단 났습니다. 저 지하실이 완성되면 형무소 안에 있는 사상범들은 전부 거기다 몰아넣고 폭파를 시켜 죽인답니다.》

경직은 통방을 치는 손까지 떨리는듯 여니때 통방보다 다르게 울린다.

《나는 금시 초문이요. 알아 봅시다. 당황해 할 필요는 없소.》

성호는 벌떡 일어나 창 앞으로 가며 공사장을 내다 보았다. 간수놈들이 수형자들을 몰아치는 폴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대피 방공호 같으면 이미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정말 폭격을 당할 우려가 있다 해도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아낀다고 놈들이 저렇게 기가 나서 공사를 몰아치겠는가. 경직이 말이 옳은 것 같다. 왜냐 하면 단말마적 발악을 하는 일제가 응당 그런 행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간수가 감시 구멍으로 들여다 보며 무엇을 보느냐고 소리를 지른다. 성호는 얼른 돌아 서며



《담당님, 저희들은 언제 저렇게 일을 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기결감으로 보내 주지 않습니까? 인제는 이 미결감이 질식을 할 것 같습니다. 최종 언도가 내렸는데 기결로 좀 얼른 보내 주십시요.》

성호가 얼떨떨하게 늘여 놓았다. 간수놈이 뒤'창문을 내다본다고 욕질을 할가 봐서였다.

《그건 나는 모른다. 상부에서 하는 일인데 빨리 앉아. 한번만 더 내다보면 벌을 세울테다…》

미결감에서 말을 하거나 자기 위치를 뜨거나 서서 창을 내다보다가 간수놈에게 들키면 문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벌을 두 시간 이상 다섯 시간을 서던가 나가서 격검채로 실컷 맞고 오던가 한다. 그러나 무기수들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도 못 된 놈에게 걸리면 의례 봉변을 당한다.

《담당님, 좀 반영해 주십시요.》

《그래라.》

담당 간수는 비교적 순한 놈이였다. 이 기회를 리용해 성호가 물었다.

《담당님, 저 뒤에서 지금 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이 말에 간수놈은 좀 당황하더니

《그런 것은 알 필요 없어.》

하고 감시구 딱지를 탁 닫고 가버린다. 성호의 의혹은 점점 깊어 갔다.

며칠 뒤 그것이 틀림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성호는 놈들의 최후 발악에 대한 격분을 금치 못 하면서도 많은 어리고 젊은 동무들이 불안 속에 잠겨 있는 것부터 먼저 도와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성호는 다음과 같이 통방했다.

《놈들이 그 목적으로 지하실 공사를 착수한 것은 틀림 없소. 그러나 놈들은 저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패망하오. 꼭 그렇게 되오. 저 공사는 적어도 6월 내지 7월까지 가오. 그러나 놈들은 그전에 꼭 망하오. 안심하고 있소. 또 만일 공사가 빨리 끝나고 놈들이 망하기 전에 그런 만행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1 대 1로 싸울 결의를 가져야 하겠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는 들어 가지 않을 것이요. 공연히 불안해들 말고 높은 경각심으로 적들의 동정을 살핍시다. 우리는 바보들이 아니요. 바로 조국을 찾기 위해 나선 애국자들이며 혁명가들이요. 원쑤들의 희망 대로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소. 용기들을 내시요. 그리고 고도의 경각성, 긴밀한 련락을 가지도록 서로 단합합시다.》

이런 내용의 통방이였다. 이 통방은 삽시에 퍼졌으며 모두 그런 결의 속에 굳게 단결할 것을 맹세했다.

이 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성호와 시욱은 갑산 사건 동무들로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기결감으로 나가게 되였다.

성호가 기결감 (징역을 직접 사는 곳)으로 나가게 된 것을 알게 된 동무들은 모두 애석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동지가 기결감으로 나가면 우리와 어떻게 련계를 지어 줄 작정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몇 호실 질문, 몇 호실 질문 하고 련거퍼 통방으로 울렸다. 그들은 모두 지하실 때문에 더 당황들했기 때문이다.

《안심하오. 지하실로 들어 가게 되면 기결수들이 먼저 들어 갈게요. 또 기결수들이 먼저 알 게요. 련락은 내가 책임지겠소. 다만 미결에서는 누구도 동요 없이 서로 긴밀한 련계만 보장하시요. 변동이 있는 대로 책임을 지고 통보할테요.》

이렇게 겨우 안심시켜 놓고 성호는 기결감으로 넘어 왔다.

그런데 놈들은 만일의 경우 사상범들을 전부 학살할 계획을 했는데 그 날'자가 아주 묘했다. 놈들은 재 해 즉 1945년 8월 18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로 이미 징역 년한이 끝난 사람들도 예비 구치감에 넘기였으며 또 밖에 나가 있는 이전 사상범들까지도 전부 구금하는 준비를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다. 8월 15일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놈들이 8월 18일로 조선의 애국자들을 전부 학살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였다.

기결감으로 나온 성호는 6 공장으로 배치되였다. 징역을 사는 사람은 밤에는 감방에 들어 와 자고 낮에는 공장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다.

성호는 몸이 건강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장에 들어가 일도 하며 운동도 하면 좀 몸이 건강해 질 것을 타산했던 것이다. 그것보다도 놈들이 가라면 안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성호는 차라리 공장 일이 잘 됐다 싶었다.

성호는 붉은 옷을 갈아 입고 먼저 공장으로 들어 갔다. 6 공장이라는 데는 일본놈들의 격검복을 만드는 공장이였다. 백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붉은 옷을 입고 걸상을 타고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일제는 이렇게 수형자들까지 착취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성호를 데리고 간 간수는 공장 담당 간수 앞에서 성호를 인계하고 돌아 갔다.

그런데 성호를 뜻 밖에도 기쁘게 한 것은 시욱이도 이 공장으로 배치되여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성호와 시욱은 서로 포옹도 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서로 마주 보고 웃을 수도 없었다. 백 명 가까운 인원이 한 곳에서 일을 하지만 필요 없이 이야기를 하거나 웃거나 마주 서 있거나 일을 안 하고 한눈을 팔거나 하면 한쪽 높은 대 우에서 올빼미

눈을 하고 서 있는 간수가 담바 불며 그 자리에서 철사를 꼬아 만든 채찍으로 후려 갈기고 심하면 휴계실에 보내여《비행기》까지 태운다. (묶어서 동동 달아 매는 형벌이다.) 그렇지만 성호는 그립던 동지며 다정한 전우인 시욱이와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지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지 몰랐다.

담당 간수는 무기수요,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 하여 성호와 시욱의 작업 장소를 한 쪽에서 한 쪽 끝으로 갈라 놓았다. 성호는 겨검복 어깨를 누비는 일을 했고 시욱은 겨검복 가슴에 대는 물건을 만드는 작업대에 배치되였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도 성호는 지하실 공사 정형에 대해 관심을 돌렸으며 감방에 들어 오면 방안 사람들에게 교양을 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

어느덧 봄이 다시 찾아 왔다. 성호와 시욱은 매일 6 공장에 나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리운 전우들, 쇠고랑을 찬 채 우울한 독방에서 무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네 동지를 생각하면 놀리던 손에서 저절로 맥이 풀리였다. 성호는 될 수 있는 대로 네 동지의 안위를 알아 보기에 신경을 썼다.

《야 독일놈들이 얼른 거꾸러지면 일제에 대한 쏘련의 전격적인 공격으로 이 놈들도 빨리 손을 들 터인데.》

성호는 감방에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그저 이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다.

그러나 일제 야수들은 새해로 잡아 들며 리 동순, 권 벽, 지 정환, 리 문걸 등 조선의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이며 애국자들에게 끝내 사형 집행을 서둘렀다. 패망에 직면한 일제 살인귀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의 귀중한 아들들이며 혁명가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살해할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였다. 놈들은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일본 본국과 이러저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였다. 이 절차를 밟는 기한이란 몇 달도 지연되고 심하면 1 년 이상 끄는 수가 있었다. 그런데 놈들은 제놈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지라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포기했다. 우선 사형에 처하고 보자 이러한 배짱이였다. 그러기에 놈들은 성호, 시욱 등이 고등 법원에 상소했으나 무법하게도 이를 전부 기각해 버렸다.

성호, 시욱 등 다른 동무들은 모두 기결감으로 나가 징역을 살기 시작했지만 네 동무만은 의연 손에 쇠고랑을 찬 채 감방에 앉아 놈들이 강요하는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다.

동순이도 권 벽이도 이제 더 미련이 남은 것은 없었다. 새삼스럽게 더 놀라웁지도 않았다. 혁명을 위해서는 원쑤들을 잡지 않으면 원쑤에게 잡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은 원쑤들에게 이미 잡히고 만 것이다. 진실로 불행한 일이며 두고 두고 한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제 더 생각해서 무엇하리!

그렇지만 동순은 철창에 밤이 들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감방은 다르지만 권 벽이도 그랬다. 또 다른 두 동지도 그랬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서인가? 아니다. 억울하게 죽는게 분하고 슬퍼서인가? 아니다. 오직 조선 혁명을 위해 할 일을 다 못하고 눈을 감게 되는게 너무도 미진해서이다. 그 어렵고도 벅찬 혁명 과업을 누구에게 남겨 두고 이렇게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동순은 지난 날 그 보람차고도 슬기롭던 혁명 활동의 나날이 가슴을 파고 들었다. 고향에서의 소년 시절은 그만 두더라도 오풍동 널발데기에서 혁명의 령도자를 찾아 표연히 장백현 신흥촌으로 이사 가던 일, 거기서 만난 동지들, 그 후 조 구를 만났으며 다시 김 혁을 만났고 다음은 오매에 그립던 김 일성 장군을 처음 뵈옵던 일, 동순은 그 생각만 해도 금시 가슴이 미여지는 것 같았다.

(지금쯤 그 분들은 어디 계신가. 이 밤중에도 놈들의 뒤통수를 갈기는 치렬한 공격전을 진행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숙영지에서 대원들과 같이 휴식을 하고 계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밀림 속을 행군하고 계신가, 아 장군님은 지금 어데 계신가. 건강은 어떠신가, 대원들의 사기는 더욱 충천하고 대렬은 더욱 확대되고 최후 결전을 위해 내달리는 빛나는 전투마다의 승리의 기록은 더욱 높아가고! 그런데 장군님, 리 동순은 이렇게 무력하게 철창 속에 있습니다.)

동순의 추억은 다시 꼬리를 물고 뻗어 나갔다. 신흥촌, 우럭'골, 지양개, 왕가동, 거기서 희샤즈거우 밀영지, 멀리는 8 도구, 6 도구에 이르기까지 밤'잠을 안 자고 산'길을 걸어 다니며 만나던 동지들, 조국 광복회원들, 부녀회원들, 청년 동맹원들, 소년회원들, 과업을 제시하면 생명을 내걸고 수행한 동무들, 혁명 임무라면 물 불을 헤아리지 않던 동지들, 그 중 적지 않은 동지들은 체포되여 함흥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나중에는 봉천(심양) 감옥으로 가서 철창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그 뒤로 장백현 지구에는 더욱 깊은 조직의 뿌리를 박고 있을 것이다. 지금쯤 누가 자기를 대신해 산'길을 걷고 있을가, 병선이, 덕삼이 대신으로 누가 뛰여 다니고 지양개에서는 리 운이 대신 누가 분주히 돌아다닐가. 밀림 속 눈보라도 그립고 풀포기 하나도 그립고 길'가의 돌'덩이 마자 그립구나.

(장군님! 권 벽, 지 정환, 리 문걸, 저, 이 네 사람은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일제 야수들의 손에 걸리여 먼저 갑니다. 그러나 김 성호, 김 시욱은 다시 장군님을 뵈일 것입니다. 이 두 동무가 나가면 저희들이 수행 못한 몫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부디 만수 무강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렇게 입속으로 중얼거려 보는 동순은 부지중 뜨거운 눈물이 두 줄기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을 느끼였다. 그 뒤로 동순은 잠을 제대로 잤다. 마음은 한결 맑고 고요하였다.

그러던 중에 바로 3월 10일이 왔다. 이 날은 놈들의 소위 륙군 기념일이였다. 놈들은 쏘련에 항복하여 손을 들기 다섯 달 전인 바로 1945년 3월 10일에 잔인하게도 조선의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이며 애국자들인 리 동순, 권 벽, 지 정환, 리 문걸 등 네 동지에게 교수형을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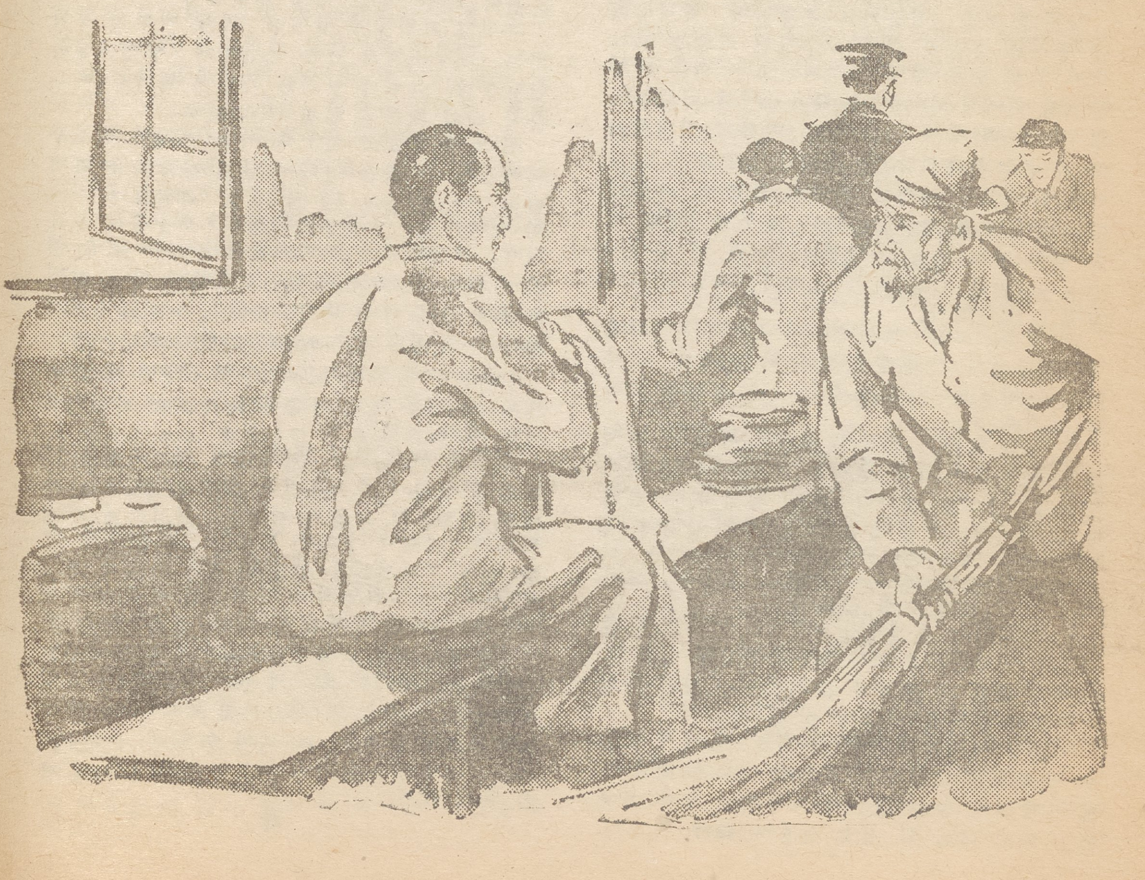
이 날은 새벽부터 궂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였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아 네 동지의 죽음을 억울하게 울어 주는 것만 같았다. 교형리들은 새벽부터 날뛰였다.

교수대는 유축진 곳인 산 밑으로 따로 떨어져 무슨 창고 같이 우뚝 서 있는 벽돌로 지은 집이였다. 놈들은 조선을 강점한 후 36 년간 조선의 많은 애국자들, 공산주의자들을 이 곳에서 교수형에 처하였다. 이제 또 발악적으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이며 애국자들인 네 동지를 교수형에 처하려는 것이다.

시간이 되자 리 동순 감방문이 덜컥 열렸다.

《나왔!》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는 동순은 태연히 복도로 나왔다. 복도에는 간수 두 놈이 동순을 데려 갈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두 간수놈이



동순이가 나서자 얼른 량쪽으로 붙어 서며 겨드랑을 낄려고 했다. 동순이가 한 마디 쏘았다.

《비켜라 내 혼자 걸어 갈테니 길이나 안내해라!》

두 놈이 머죽해 물러 섰다.

《어디로 가느냐. 걸어라. 따라 가마.》

동순이의 태연하고 위엄 있는 말 소리에 두 놈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그중 한 놈이

《따라와!》

하고 앞을 섰다. 한 놈은 동순이 뒤에 바짝 붙어 따라 갔다. 복도를 나와 마당에 내려 서니 비는 계속 내리였다. 마지막으로 보는 조선의 비며, 하늘이며, 구름이다. 옆으로 멀직히 보이는 마지막으로 보는 인왕산은 운무에 가려 어렴풋이 무거운 고개를 드리고 있다. 동순은 조선의 맑은 하늘이 보고 싶었다. 쨍쨍 비치는 태양을 한번 마음껏 보고 싶었다. 그러나 어찌 다 소망을 풀 수 있는가! 동순은 비를 시원히 맞으며 뚜벅뚜벅 교수대로 걸어 갔다.

《조선 독립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동순은 마지막으로 힘껏 만세를 불렀다.

놈들은 다음 권 벽을 같은 방법으로 데려 내왔다. 다음은 지 정환, 리 문걸…

이렇게 가장 친근하고 존경하며 믿어웁던 네 동지가 놈들에 의해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성호는 미결감에서 어제 새로 나온 젊은이에게 리 동순, 권 벽 등 네 동지가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소식을 들은지라 별 생각 없이 그저 독일 패망에 대한 생각에만 잠기고 있었다. 그런데 티받이와 비를 들고 다니며 검부러지들을 계속 쓸어 담고 있는 소제부가 저녁 때 슬며시 성호가 앉아 있는 데로 오더니 비질을 하며 가만히 속삭였다.

《선생님, 오늘 오전 그 네 분에게 사형을 집행했답니다. 인제 시체가 이 옆으로 지나 갈테니 창으로 내다 보세요. 내 기침을 하거던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성호는 눈앞이 아뜩했다. 소제부는 저쪽으로 가서 먼지를 일쿠고 문을 열어 놓았다. 성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막 쥐여 뜯기는 것 같았다. 동시에 일제에 대한 저주로 하여 손이 떨리였다.

《복수를 받아 봐라. 제국주의 네놈들, 모가지가 달릴 날도 멀지 않았다.》

이 때였다. 소제부가 저 쪽에서 기침을 쿨룩쿨룩 하였다. 성호가 얼른 머리를 돌렸다. 들것에 들린 네 시체가 붉은 옷을 입은 수형자들에게 들리여 지나 가고 있다.

성호는 너무도 비참해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성호는 막 흐느껴 울었다. 옆 사람들이 눈을 던졌다. 마침 간수가 보고 대 우에서 내려 와 성호 옆으로 왔다.

《왜 우냐?》

성호는 천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집 생각이 나서 웁니다.》

간수가 위신을 차리고 타이르듯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데 안 들어 오도록 수양을 잘 해야 한다.》

하고 뚜벅뚜벅 가 버렸다.

성호는 이 날 밤 한 잠도 자지 못했다. 시욱이는 미처 시체 지나 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느라고 일을 못했다.

네 동지를 구해 볼려던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 갔다. 인제 다시 무엇이 그 동지들을 돌아 오게 하겠는가. 독일 파시스트들, 일제 야수들인 놈들을 모조리 죽이라! 씨를 없애라!

성호는 밤새도록 이런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 뒤로부터 만 59 일만에 독일이 거꾸러졌다. 위대한 쏘련 군대는 독일 파시스트를 최종적으로 멸망시켰다. 인제 일제가 거꾸러질 날이다. 쏘련 군대는 지체 없이 동방 침략의 아성인 일제 침략군에 대한 선전을 포고하고 전격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형무소의 《죄수》들은 독일 파시스트의 패망과 일제에 대한 쏘련 군대의 공격 개시의 소식을 듣자 금시 조선이 해방이라도 된듯 기뻐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제는 더욱 기염을 부리였고 형무소에서 더욱 잔인하게 수형자들을 탄압했다. 그러나 일제가 이렇게 행악을 하는 사이 그의 패망은 점점 다가 왔다.

김 일성 장군을 선두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날을 위하여 일제 강도들을 반대하여 총칼을 들고 15 개 성상 싸웠으며 수만의 애국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감옥에서 신음하며, 교수대에서 쓰러지면서까지 그 날을 위하여 싸워 온 조선 인민이 갈망해 마지 않던 해방의 날이 더욱 속히 다가 오고 있었다. 서광이 더욱 령롱하게 조선의 하늘에 비껴 왔다.

3천만 조선 인민이 고대하여 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 김 일성 장군이 조국으로 개선하실 날도 멀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 민족 해방 동맹 지도자들에 대하여 인간의 리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 악형으로 그들의 건강을 잔인하게 파괴하였다. 그러나 성호를 비롯한 조선 민족 해방 동맹 지도자들은 놈들의 온갖 악형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면서도 항상 김 일성 장군을 우러러 줄기찬 투쟁의 한 길로 줄달음쳤다.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서대문 형무소의 무거운 철문이 활짝 열리였다. 김 성호, 김 시욱을 위시한 조선 민족 해방 동맹 지도자들과 투사들, 그 외의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 애국자들이 그리웁던 인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 왔다.

끝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박 영 순

《자력 갱생—이것은 공산주의적 혁명 기풍과 혁명 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세계 혁명에 복무하는 길이요, 앞장 서 나아가는 형제 나라들의 원조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를 연구하느라면 나에게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새롭게 떠 오르군 한다.

내가 처음 김 일성 동지를 만나 뵌 것은 1933년 초 소왕청에서였다.

나는 그 때 《연길 폭탄》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왕청 유격대에 갔었다.

소왕청 따팡즈(大房子)에서 내가 유격대 동무들에게 《연길 폭탄》에 대한 강습을 주기 시작할때 너그러운 미소를 담은 얼굴에 눈에서 류달리 영채가 도는 젊은 분이 들어 왔다.

누구인지는 모르나 모든 유격대원들이 그에게 친근하고도 존경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보아 보통 대원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동무들이 이번에 작탄 쓰는 법을 잘 배워야 하오. 적을 잡아야 할 폭탄에 동무들이 상하는일이 없어야 하겠소!…

그이는 대원들을 돌아 보시며 이렇게 당부한 다음 나에게로 오시여 친절히 악수를 하신 후 폭탄 제작 정형을 자세히 물어 보시였다.

…동무는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소. 이번에 왔던 길에 유격대원들은 물론 근거지 내 전체 성인들과 아동단원들에게도 다 작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래야 동무가 애써 만든 무기가 적들을 더 많이 잡는 데 효력을 나타낼 것이요.

…작탄을 더 많이 만드시오. 동무도 아다싶이 우리에게는 무기도, 식량도 가져 올 데가 없소. 그러니까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야 하오…

그이는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 나가시였다.

강습이 끝난 후에야 나는 그이가 김 일성 동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나는 그이를 다시 만나뵙지 못한 채 연길로 돌아 왔다.

그러나 그 때 김 일성 동지가 하신 말씀은 나에게 무한한 힘을 주었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수리하자는 결심을 굳게 다지게 하였다.

나는 그 후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내려고 더욱 힘썼다.

이리하여 나무 대포도 만들게 되였고 보총 격침, 격발기, 안전 장치까지도 모두 우리 자체의 힘으로 고쳐 쓰게 되였다.

도끼와 톱, 그리고 망치와 집게, 줄칼 같은 도구만을 가지고 정밀한 기계 공장에서 만들어 낸 보총이나 권총의 부속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참말로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우리 나라 동화에 쇠절구'공이를 돌에다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그 때 사정이야말로 이와 못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마다 나는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을 생각하고는 다시 힘을 내여 일하였다.

이러다가 1936년 봄 미혼진에서 김 일성 동지를 다시 만나 뵙게 되였다. 그 때 나는 열병으로 앓다가 조금 나아서 다시 일하고 있었는데 김 일성 동지가 미혼진으로 오신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나는 이번에는 그이를 만나 뵈리라 속다짐을 하며 기다리였다.

나의 소원 대로 이 번에는 그이의 가르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다.

당시 우리가 있던 밀영의 한 켠은 군대실로 쓰이고 다른 한 켠에서는 내가 무기 수리를 하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군대실에서 회의를 하시다가 쉬는 시간이면 내가 일하는 쪽으로 건너 오시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군 하시였다.

《박 포리(나의 별명)동무로구만, 그간 얼마나 수고를 하였소?》

김 일성 동지는 첫눈에 나를 알아 보시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며 무기 수리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 보시였다.

하루는 수리하려고 갖다 놓았던 가목이 부러진 총을 들어서 유심히 살피시다가 《좋은 총이 못 쓰게 되였군! 이렇게 된 것은 고칠 방법이 없소?》라고 나에게 물으시였다.

나는 그 때 깎아서 온돌에서 말리고 있던 총가목을 보여 드리며 그것으로 갈아 넣으면 새 총이 될 것이라고 말씀 올리였다.

김 일성 동지는 새로 깎아 놓은 총가목을 들고 이모저모 만져 보시며 《이건 정말 공장에서 만든 총가목과 조금도 다름이 없군! 무슨 나무로 이것을 깎았소? 도구는 어떤 것을 쓰오?》라고 물으셨다.

나는 도끼와 칼을 가지고 통나무를 깎아 만들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김 일성 동지는 우리의 조잡한 도구를 일일이 손에 잡고 유심히 보시며 《혁명에 참가하기 전에 목수 일을 하였거나 철공장에 다닌 일이 있소?》라고 다시 물으셨다.

나는 목수'일을 한 적이 없으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벼림질하는 것을 도운 일 밖에 없었다고 말씀 드렸다.

그러자 김 일성 동지는 옆의 동무들을 돌아 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오,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 해 낼 일이 없소. 이 동무는 혁명에 참가하기 전에는 목수'일도 야장 일도 모르던 사람이였소. 그런데 혁명을 위하여 아악하게 달려 들어 하자고 노력한 결과 무엇이든지 못 만드는 것이 없지 않소. 이런 총가목도 공장에서나 만드는 줄 알았지 누가 도끼로 이렇게 훌륭히 만드는 줄 알겠소!…

김 일성 동지는 계속하여 나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작탄을 만들고 무기를 수리하여 혁명에 더 이바지해야 하겠소.

한 자루의 총, 한 알의 탄알이라도 못 쓰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다 고치고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야 하오.

이 한 자루의 총이나 한 개의 탄환은 모두 우리 동무들이 생명으로 바꾸어 온 것이 아니요. 이런 귀중한 무기를 쓰지 못 하고 버려서야 되겠소?…

나는 이 말씀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느끼였으며 그이의 가르침을 따라 앞으로 더욱더 아악하게 달려 들어 자기 앞에 맡겨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리라는 결심을 다시금 굳게 다지였다.

그 이후 나는 김 일성 동지의 지시에 따라 무송현 다젠창에다 밀영을 짓고 병기창, 병원, 재봉대 사업을 책임지고 일하다가 그 해 겨울에 희샤즈거우 밀영으로 갔었다.

내가 그 곳에 도착하자 김 일성 동지께서 2~3 일 내에 도착하신다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 드실 집이 아직 마련되지 못 하고 있었다. 나는 다음 날 재빨리 집을 한 채 지으려고 차비를 서둘렀다. 보통 생각으로 하면 엄동 설한에 그것도 도끼와 톱만 가지고 강'대(선 채로 말라 죽은 나무)를 쪼개여 귀틀'집을 짓고 문, 책상, 걸상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더구나 기일이나 넉넉하면 또 모르겠는데 김 일성 동지가 도착하시기 전에 다 끝내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가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해 내고야 말겠다는 정신으로 연구를 거듭한다면 무엇이든지 못 해 낼 일이란 없었다.

우리는 가슴을 치는 눈을 헤치고 도끼와 톱으로 강'대를 찍어다가 그 분이 계실 귀틀'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강 위룡 동무와 나는 추운 줄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날로 그이가 계실 귀틀'집을 다 지어 놓았다.

다음 날 김 일성 동지가 희샤즈거우 밀영으로 오시였다.

그 이는 나를 보시더니 반가와 하시며 전령병을 부르시여 그 때까지 지워 가지고 다니게 한 줄칼과 쇠 써는 톱을 배낭에서 꺼내여 나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동무에게 주려고 지방 공작 나가는 동무들에게 과업을 주어 구해 두었던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작탄을 더 많이 만들고 무기를 더 잘 수리하시오.》

병기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그이의 깊은 관심과 두터운 배려를 생각할수록 나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감격에 가슴이 북받쳐 왔다.

바로 김 일성 동지의 이런 의도를 받들어 매개 대원들도 파철 하나, 못 하나라도 보기만 하면 주어서 병기창으로 가지고 오군 하였다. 바로 이렇게 모인 파철과 자재로 우리는 작탄을 만들고 무기를 수리하였다.

그 날 김 일성 동지께서는 우리가 지은 집을 돌아 보시며 대단히 만족해 하시였다.

《…겨울에도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은 것은 참말로 장한 일이요. 이왕 짓던 바에는 집을 또 하나 지어야 하겠소…》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더러 강 위룡 동무와 같이 홍두산에 들어 가서 밀영을 짓고 병기창과 재봉대를 차려 놓을 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화약과 파철, 철사 같은 것을 많이 보내 줄 터이니 작탄을 많이 만드시오. 그리고 설 명절에는 나도 그 곳으로 가겠으니 우리 동무들이 한 방에 모일 수 있도록 집을 큼직하게 지으시오…》

김 일성 동지는 헤여질 때 이렇게 당부하시였다.

우리는 그이의 말씀 대로 홍두산에 가서 한 중대의 인원이 들 수 있는 온돌방을 비롯하여 병기창을 차려 놓을 방을 포함한 큰 귀틀'집을 4 일 간에 지었다.

밀영을 짓고 나니 곧 폭탄을 만들 재료들이 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밤낮 없이 폭탄을 만들어 계속 부대에 보내였다.

설 명절이 가까와 오고 있었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를 맞을 준비를 서둘렀다. 물론 설이라고 하지만 당시 형편에서 설날 음식으로 차릴 만한 것이 없었다.

우리 두 사람은 감분으로 그 이가 좋아하는 국수를 눌러 드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국수를 누르는 분틀을 만드는 것이 문제였다.

도끼로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분통을 아무리 하여도 다스리는 수가 없었다. 애쓰다 못해 나는 만들던 분틀을 내 던지고 말았다. 그런데 강 위룡 동무가 분틀 밑에 대려던 통조림통에다 공이를 맞추어 가지고 직접 국수를 누를 수는 없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였다. 통조림통 밑에다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공이를 만들어 국수를 눌러 보았다. 그런데 통조림통이 자꾸만 아래로 밀려 내려 갔다. 우리는 두 가지로 뻗은 나무를 베여다가 그 가지 사이에 통조림통을 끼우고 밀려 내려 가지 못하게 통 밑에다 철사 줄을 띄워 가지고 마침내 분틀을 만들었다.

김 일성 동지는 약속하신 대로 어김 없이 설날에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였다.

우리는 그 분틀을 대야 우에 놓고 국수를 눌렀다.

국수를 보시자 김 일성 동지는 《이 산중에서 국수가 어데서 났소?》라고 하시며 놀라와 하시는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들이 분틀을 만든 사연을 들으시고 나서 분틀을 자세히 보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제 힘으로 해 내고야 말겠다는 립장에서 노력하면 이런 산 중에서도 국수도 나오고 그보다 더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소…

김 일성 동지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혁명을 하기 위하여 일심 정력을 기우려 노력한다면 무엇이든지 못 해 낼 일이 없다는 인식을 더욱 굳게 하여 주었다.

나는 김 일성 동지가 하신 말씀의 진의를 그 후 자신의 체험에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는 대원들을 인솔하고 다시 전방으로 나가시며 우리에게 무기 수리와 함께 전방 부대 대원들의 버선을 만들어 보낼 긴급한 과업을 주시였다.

불과 일 주일 사이에 수백 켤레의 버선을 만들어야 하였다. 한 대 밖에 없는 재봉기를 가지고 이 과업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

웠다.

그러나 전방에서 동지들이 버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과업을 하루 바삐 완수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 밑에 일'손을 다그쳤다.

재봉대 동무들은 교대를 조직하여 밤낮 기계를 놀리지 않고 버선을 만들었다.

그런데 예정 수량의 절반도 만들지 못하였는데 하나 밖에 없던 재봉기 바늘이 부러졌다.

나는 이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 통신원들이 버선을 가지러 올 기일은 박두하였다.

박 수환, 리 수복 등 재봉대 동무들은 애가 타서 밤을 새우며 손으로 버선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손으로 하여서는 도저히 기일 내에 보장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심산 속에서 재봉기 바늘을 구할 수도 없었으며 또 만들어 내기도 어려웠다.

물론 우리는 망치와 집게, 줄칼 등을 가지고 폭탄도 만들었고 가장 작은 권총까지도 고치였다.

그리고 재봉기 북도 만들어 썼다.

그렇지만 줄칼을 가지고 재봉기 바늘이야 어떻게 만들겠는가.

나는 속이 달아나고 안타까웠다.

《사장 동지께 무엇이라 보고 하겠는가! <바늘이 부러져서 혁명 과업을 수행하지 못 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야 없지 않는가!》

이렇게 자문 자답하는 나의 머리에는 겨드랑을 치는 눈 속에서 원쑤들과 싸우는 전우들의 모습이 떠 올랐다.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혁명 과업을 앞에 놓고 해결하지 못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며 강철 철사를 잘라서 돌에다 갈아 재봉기 바늘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좀 부피가 있는 것이라면 손에다 잡고 마음 대로 다룰 수도 있었으나 손톱으로도 겨우 잡히는 가는 줄에 바늘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 홈까지 파자니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담배씨로 뒤웅박(쪼개지 않고 속을 파낸 박)을 판다는 말이 있지만 이 일도 그만 못지 않는 일이였다.

나는 손 끝에서 빠져 나가고 미끄러져 나가는 철사를 가지고 밤 새워 씨름을 하여 끝내 재봉기 바늘의 형태를 말들어 내고야 말았다.

그것을 재봉기에 끼워 보고 맞았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겨우 실'밥이 두 눈도 박히기 전에 부러지고 말았다.

나는 다시 밤을 새우며 다른 바늘을 만들어 가지고 쇠를 띄워서 강도를 잘 조절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이내 부러지고 말았다.

철사로는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면 무엇으로 한단 말인가? 우리에게는 더 강한 철선도 없으며 자유 자재로 열 처리할 수 있는 설비도 없지 않는가!

나는 온 몸에서 맥이 풀리는 것을 느끼였다.

바로 이럴 때에 김 일성 동지가 하시던 말씀이 머리 속에서 되살아 났다.

나는 순간 곤난 앞에 수그러 들려던 자신을 돌이켜 보며 속으로 되뇌였다.

《아직도 생각이 부족한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안 될 리 없다.》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나는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나는 문득 손바늘 생각이 났다. 손에다 바늘을 들고 살피고 또 살펴 보았다. 《더 굵은 바늘이 없을가?》하는 생각이 들자 나에게는 강 위룡 동무가 신을 깁느라고 모자에 끼워 가지고 다니던 돗바늘 생각이 났다.

나는 강 위룡 동무의 모자에서 돗바늘을 빼여 가지고 생각하여 보았다.

우선 그 가늘고 굳은 바늘에다 어떻게 구멍을 뚫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로만 생각되였다.

쇠를 뚫을 수 있는 그렇게 작은 송곳이 설사 있다해도 무슨 수로 그 굳고도 둥글고 가는 쇠에다 구멍을 뚫어 낼 것인가?

돗바늘을 들고 앉아 이렇게 생각하던 나는 《구멍을 못 뚫는다면 다른 도리는 없겠는가?》 하고 궁리하여 보았다.

그러자 《구멍을 새로 뚫을 것이 없이 이미 뚫어져 있는 바늘'귀를 리용할 수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퍼뜩 머리에 떠 올랐다.

이 생각이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로 되였다.

나는 바늘'귀 쪽을 불에다 달구어 가지고

그것으로 재봉기 바늘 끝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용이한 일은 아니였다.

잘 못 하다가는 바늘 구멍이 메여질 념려가 있었고 구멍을 살리자고 하면 바늘 끝이 좀처럼 서지 않았다.

나는 생각하던 끝에 바늘 구멍에 맞게 쇠를 깎아 끼우고 바늘 끝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천신만고하여 바늘 끝을 다스리고 나니 그 다음에는 바늘에다 실이 통하는 홈을 파는 것이 문제였다.

손에도 잡히지 않게 작은 데다가 매끄럽기까지 한 바늘에 도무지 줄칼을 댈 재주가 없었다. 쥐면 빠져 나가고 줄칼을 대려면 미끄러져 나가군 하였다.

아무리 애써도 맨손으로는 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홈을 낼 것인가를 생각해 내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마침내 쇠를 쪼개여 그 사이에 바늘을 끼우고 죄인 다음 그것을 통나무에 대여 움직이지 못 하게 하고 줄칼로 조심조심 홈을 파기 시작했다.

손끝에 힘을 한 번만 잘 못 주다가는 줄이 삐뚜로 나가게 되고 한 줄만이라도 잘 못 금을 그어 놓는 날이면 모든 것이 허사로 되는 판이였다.

나는 밤이 새는 줄도 또 한낮이 되는 줄도 모르고 바늘과 씨름을 하였다.

마침내 끝과 홈이 되여 재봉기에 맞추어 보니 바늘은 끝 쪽이 가늘기 때문에 기계에 맞지 않았다. 나는 바늘 끝에 가는 철사를 감고 그것을 때여서 재봉기에 맞게 만들었다.

재봉대원들은 그것을 기계에 끼우고 조심조심 천을 박아 나갔다. 순조롭게 바느질이 되였다. 그들은 환성을 올리며 서로 부둥켜 안고 빙빙 돌아쳤다.

그런데 한참 박고 나면 실이 끊어지군 하여 속도를 높일 수가 없었다. 나는 바늘을 빼여 실을 홈에 대고 훑어 보며 어디에서 실이 끊어지는가를 살펴 보았다. 알고 보니 홈과 구멍 사이에 육안으로는 잘 알아 볼 수 없을만한 정도의 작은 모가 나서 그 곳에 실이 닿아서 끊어지는 것이였다.

작은 홈 속에 난 이 모서리를 제거 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줄도, 칼도, 송곳도 안 들어 가는 그 작은 홈 속을 닦아 낼 기구가 없었다.

나는 생각던 끝에 줄칼쇠로 바늘보다도 더 가는 기구를 만들어 네 모를 낸 다음 모서리에 칼날처럼 날을 세웠다. 이렇게 만든 다음 그것을 홈과 구멍 사이에 넣고 자꾸 돌리였다.

이렇게 하여 겨우 그 모서리를 없애자 실이 끊어지지 않고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애써 만든 바늘이였건만 아무래도 원 재봉기 바늘보다는 약한지라 버선 몇 십 켤레를 박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았다. 우리는 얼마간 떨어져 있던 다른 후방 밀영으로 사람을 보내여 돗바늘 두 개를 구해다가 또다시 천신 만고를 하면서 재봉기 바늘 두 개를 만들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김 일성 동지가 지시한 기일 내에 버선을 다 만들어 부대에 보낼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자기들 앞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기어코 완수하였다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하여 가슴이 벅차 올랐다.

지금도 이 때 일을 생각하면 김 일성 동지가 가르치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면서 어떤 난관이던 뚫고 싸워 온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대하여, 나아가서는 해방 후의 조국 건설의 나날에 대하여 벅찬 감격을 금할 수 없다.

바로 오늘 김 일성 동지의 이 사상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동방 일각에 거연히 솟은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륭성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이의 가르침을 따라 그이의 현명한 령도 밑에 허리띠를 졸라 매고 푼전을 아껴 가며 전후 폐허 우에 용광로, 발전소, 자동차, 뜨락또르와 대형 기계들을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중공업과 경공업을 창설하였고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사회주의 농업을 창설하여 놓았다.

우리 힘, 우리 기술로 다양하고 풍요한 자원을 남김 없이 동원하여 인민의 복리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갖춘 우리 나라.

북반부 뿐만이 아니라 장차 남반부 인민들까지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장만하고 조국 통일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확고히 다진 우리 조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령역에서 자기 혁명 앞에 제기된 모든 문제를 자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김 일성 동지께서 항일 무장 투쟁의 초시기부터 가르치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더욱 힘써 일하며 살며 배울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된다.



용감한 네 명의 공병 돌격대

최 창 운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1,211고지를 회상하게 된다.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에게 무리 죽음을 안겨 준 영웅의 봉우리 1,211고지!

우리는 그 때 얼마나 어려운 고비들을 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면서 용감하게 싸웠던가! 한치의 땅도 내여주지 말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아아한 산정에 직사포를 끌어 올려 원쑤를 답새우던 일, 보병삽으로 천길 갱도를 파고 그 속에 병실과 목욕탕 주방 등을 꾸리고 두부며 콩나물을 기르던 일, 적들이 투하한 폭탄 깍지와 불탄 오동나무로 화선 악기를 만들던 일, 적들의 무기를 로획해 쓰던 일…

아래에 《합정'골은 우리의 병기창》이라고 하면서 용감히 싸운 네 명의 공병 돌격대에 대하여 쓰려고 한다.

1,211고지 전투가 가렬하던 1951년 9월 말이였다.

놈들은 그 날도 우리 전연에 규칙적인 포 사격을 들이 대고는 새벽부터 그 짓궂은 《파장식 공격》을 시작하였다.

한 개 대대도 넘는 적들이 여러 개의 제대를 지어 이리떼처럼 조항'골로부터 올리 밀었다.

그런데 놈들의 공격 서렬은 우리 참호의 50～60 메터 앞에 이르러 누가 명령이라도 한듯이 뚝 멎어 버리고 말았다. 어제 저녁까지도 없었던 가시 돋친 촘촘한 철조망이 놈들의 앞을 가로 막아 섰던 것이다.

앞에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모르고 뒤따르던 《독전대》 장교 놈은

《빨리 돌격해라! 빨리 올라가라!》 하고 권총을 쏘아대며 호통쳤다.

앞에는 철조망, 뒤에는 《독전대》 놈들의 검은 총구!…겁에 질린 고용병 놈들은 꽁지에 불이 달려 갈팡질팡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놈들의 《파장식 공격》 서렬은 한 겹 두 겹 철조망 앞에 멎었다.

《독전대》 장교 놈들이 자기네 앞에 뚫을 수 없이 견고한 철조망이 가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얼마 후였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미국제 철조망이라는 것을 알자 놈들은 아연 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네놈들이 뚫을 구멍은 한 곳도 없다. 불벼락이나 받고 뒤져라!》 하고 우리 용사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고지 우에서 중기관총 경기관총 등 일체 화력을 들씌웠던 것이다. 철조망 앞에 겹겹이 몰려서 돌아치던 놈들은 서서 죽고 딩굴다 죽고 주검 우에 주검을 쌓으며 무리로 쓰러졌다. 그리하여 조항'골은 삽시간에 비명으로 가득 차고 놈들의 시체로 또 하나의 주검의 산이 이루어졌다.

대체 어떻게 된 미국제 철조망인가?

그 사연인즉은 이러하다.

밤마다 거듭되는 우리 인민군 습격조원들의 맹활동에 겁을 집어 먹은 놈들은 자기네 전연을 좀 튼튼히 꾸려 놓으려고 며칠 전에 수송기에다가 철조망을 가득 실어 왔다. 그런데 철조망을 싣고 나타난 놈들의 비행사들은 지상으로부터의 우리의 강력한 화력에 조우하자 갈팡질팡 덤벼치다가 아무데나 떨구고 뺑소니쳤다. 그리하여 백 여 퉁구리나 되는 철조망이 모두 적아간의 중간 지대인 조항'골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놈들은 우리 인민군의 화력이 무서워 철조망에 손댈 엄두도 못 냈다.

그런데 우리 공병들이 그 철조망을 그냥 놓아 둘 리 없었다. 더우기 이 해따라 오래'동안 계속된 장마로하여 30년래의 대홍수가 졌으며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였고 전선 수송이 곤난했다. 그리하여 일부 구분대들에는 탄약과 수류탄이 제때로 공급되지 못하였으며 지어는 량식마저 떨어지는 수가 있었다.

그렇다고 어찌 곤난 앞에 주저 앉을 수 있으랴!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는 백절 불굴의 혁명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땅거미 들기 바쁘게 용감한 우리 공병들은 보병과의 협동 하에 적의 시선을 딴데로 돌려 놓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조항'골로 내려 갔다. 그들은 락하산이 적의 표적이 될런지 모르므로 그것만 가위로 살짝 잘라 그 자리의 나무그루나 돌'부리들에 비끌어 매 놓고는 철조망과 말뚝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모두 날라 왔던 것이다.

그리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작업도 극비밀리에 진행하였다.

놈들이 철조망 말뚝을 박는 소리를 알아 듣을 수 없게 메를 들고 섰다가 포성과 사격 소리만 울리면 놈들의 대갈통을 까듯이 힘껏 내리쳤으며 놈들의 배때기를 한 꾑지에 꿰듯 잽싸게 철조망을 꿰여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미국제 철조망은 우리 공병들의 날쌘 솜씨에 의하여 땅에서 솟은 것처럼 놈들의 《파장식 공격》 서렬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 날 수 백을 헤아리는 놈들의 고용병들과 장교 놈들이 아우성치며 꺼꾸러질 때 누구보다도 통쾌하게 웃으며 손'벽치는 네 명의 전투원이 있었으니 그들은 용감한 공병 돌격대원들인 분대장 곽 영기, 부분대장 리 원히 전사 윤 용섭, 김 복진 동무들이였다.

그들은 바로 이 철조망 가설을 설치한 핵심들이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 네 명이 놈들의 것을 빼앗아 놈들을 되받아 치는 일을 시작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가렬한 752 고지 방어 전투 시에도 그들은 놈들의 수류탄을 몇 짐씩 로획하여다가 그것을 인발 지뢰로 개조하여 악착하게 덤벼 드는 놈들을 무수히 꺼꾸러 뜨렸고 또 한번은 놈들의 포탄에서 뽑아 낸 화약을 가지고 《후까스》를 만들어 한 개 중대는 착실히 될 적들을 몰살시킨 적도 있었던 것이다.

1,211 고지 전투에 진입하면서 그들 네 명은 보병들과 함께 최전연에서 싸울 것을 탄원하여 공병 돌격대를 조직해 가지고 무명 고지 코숭이에 나왔다.

무명 고지에 나온 첫날 밤 그들은 당 분조회의를 가졌다. 저마다의 가슴에서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 0070호를 받들고 1,211 고지의 관문인 무명 고지를 끝까지 사수할데 대한 높은 책임감과 결의가 끓어 번졌던 것이다.

《동무들! 우리는 모두 가슴 속에 조선 로동당 당증을 품은 당원들입니다.

당원인 우리들은 한 치도 물러 서지 말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 관철에서 앞장 서야 합니다… 우리 뒤에는 당 중앙 위원회가 있고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장군이 계십니다. 어찌 한 치의 땅인들 승냥이 무리들에게 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조장 곽 영기 동무의 말이였다. 영화 배우 시늉을 잘 내여 늘 걸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그러안고 웃게 하는 그였으나 이 때는 긴장으로 하여 굳어진 얼굴에서 두 눈만이 불타는듯이 이글거렸다.

펄펄 뛰는 생선국 자랑이 많던 북변 항구 타진 출신인 용섭이도 황주의 《국광》 사과 뽐내기에 신나하던 원히도 그리고 남녘 땅에서의 치욕스러운 생활을 벗어버리고 용약 인민군대에 입대한 복진이도…모두가 원쑤를 무자비하게 까부시고 조국의 한 치, 한 치의 땅을 사수할 굳은 결의를 피력했다.

《후방 인민들이 보내 온 우리의 지뢰를 아껴 쓰자!》

《놈들의 지뢰와 수류탄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써 놈들을 잡아 치우자!》

그들은 이것을 엄숙한 가운데 결의하였다.

그 때로부터 그들은 원쑤들에게 더욱 무서운 《호랑이》가 되였다.

그들의 기본 임무는 무명 고지 전연에 놈들이 달라 붙지 못하도록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이였다.

놈들은 공격할 때마다 우리 전연의 지뢰를 해제하기 위하여 늘 맹렬한 포사격부터 들이댔다.

그런데도 우리 전연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지뢰가 묻혀 있었으며 놈들이 열번 공격하면 열번, 스무번 공격하면 스무번 한번도 번지지 않고 쾅쾅 터졌다.

그리하여 놈들의 《파상식 공격》 서렬은 한참 공격하여 올라 오다가도 지뢰에 걸려 혼비백산이 되였고 그러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보병들은 놈들의 무리 속에 불벼락을 들씌우군 하였다.

그들 네 공병의 재간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그들은 놈들이 포 사격 후 공격으로 이전하는 길지 않은 10～15분 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들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포사격이 끝나기 바쁘게 전연으로 달려나가 지뢰를 묻군 했는데 수 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그들의 솜씨는 그 만큼 세련되고 날쌨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 네명은 지뢰 묻기에서 《최고급 명수》 라고도 말 할 수 있었다. 보병들이 그들의 솜씨를 가리켜 《재봉침 바늘》 같다고 감탄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그리고 놈들이 쓰러지면서 도망칠 때면 그들은 보병들과 함께 우리의 위력한 기관단총 사격을 퍼부으며 반돌격하였고 고지에 오를 때면 놈들에게서 로획한 수류탄, 탄환, 경기관총 등을 한짐씩 가득 지고 올라 오군 했다.

그리하여 《〈합정'골〉은 우리의 병기창이라네》하는 노래도 여기서부터 나왔던 것이다.

한번은 김 복진이가 놈들의 반전차 지뢰를 로획해 가지고 와서

《개놈들이 이것을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가져 오느라고 단단히 〈수고〉를 했을 텐데…어떻게 값을 잘 물어 줘야 하겠는 데요》하고 동무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모두 팔을 거두며 나 앉아 그것을 이모 저모 뜯어 보기 시작하였다.

한참 있다가 조장인 영기 동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놈을 어떻게 들들 굴 수 있게 못 할가 그러면 놈들의 공격 대오 속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데…》

《맞았습니다!》 하고 윤 용섭이가 무릎을 쳤다.

《제가 잘 굴 수 있게 만들지요. 그건 겉을 돌아 가며 채바퀴처럼 나무를 후려 대면 간단히 됩니다.》

실로 그들 네 명은 고향도 취미도 달랐으나 원쑤를 족치는 싸움에서는 친형제들 같이 손과 마음이 잘 맞았다.

이튿날 그들은 이리 저리 후려 댄 반전차 지뢰를 가지고 참호에 엎디여 있었다. 놈들의 공격이 시작되자 그들은 도화선에 불을 달아서 그것을 내려 굴렸다.

폭발 시간과 도화선의 길이를 딱 재여서 만든 터이라 반전차 지뢰는 놈들의 공격 서렬이 경사지에 올라 붙으려 할 때 그 한가운데서 굉장한 폭음을 내면서 터졌다. 그 소리와 불광이 어찌나 셌던지 적들은 우리 전연에 발도 못 대 보고 도망쳤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그 후 그들은 반전차 지뢰 뿐만 아니라 놈들의 포탄 속에서 뽑아낸 화약도 그렇게 통구리를 만들어서 내리 굴리군 하였다.

고용병들은 그 때마다 얼마나 혼났던지 인민 군대가 《신형 무기》를 쓴다고 떨덜 떨면서 우리가 돌덩이를 굴려도 눈이 휘둥그래서 도망칠 준비부터 하였다.

그런데 용감한 그들 네 명이 조국과 인민이 준 위력한 무기로 원쑤를 섬멸하는 사이사이 원쑤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써 놈들을 되받아 섬멸하는 방법은 실로 한 두 가지가 아니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들은 지뢰나 화약만으로 놈들을 잡는 것으로써는 성차지 않아 놈들의 중기관총을 빼앗아 왔다.

그리고는 넷이서 토의한 끝에 그것을 일부러 놈들의 감시와 사격을 많이 받는 무명 고지 앞 코숭이에 설치하였다. 얼핏 보건대는 대단히 불리한 것 같았으나 그들은 유리한 점을 더 크게 봤다.

즉 그 코숭이는 골짜기로 불쑥 삐여져 나왔기 때문에 넓은 구역을 감시할 수 있었으며 놈들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올라 오든지 마음대로 사격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그리고 사격을 많이 받는 불리한 점은 믿음직한 공병적인 솜씨로 힘들지 않게 극복해 버렸다. 놈들의 저격탄쯤은 막아 낼 수 있게 사방 벽을 빙 둘러 가며 포 사격에 부러진 나무와 흙으로 두텁게 쌓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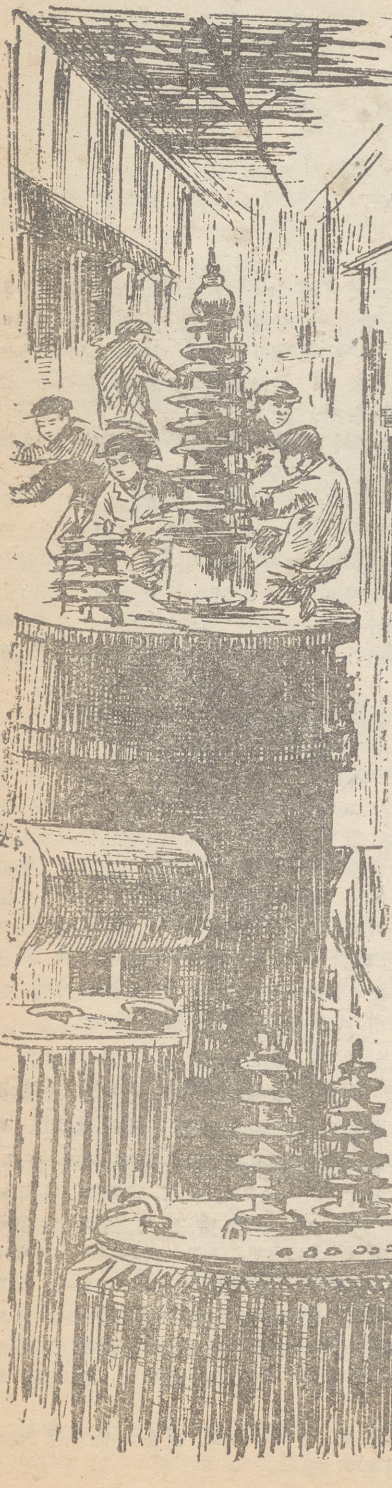
그리하여 무명 고지 코숭이에 나타나게 된 그들의 화점은 정말 멋 있는 것이였다.

180도의 방향을 부채살 펴지듯 마음대로 쏠 수 있었다. 그들은 놈들의 공격이 시작만 되면 이내 그 진지를 차지하고는 적들에게 보병들처럼 마음껏 명중탄을 퍼붓군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계가 좋기 때문에 놈들의 공격 서렬이 나타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화구를 열고 또 놈들이 퇴각할 때면 제일 마지막까지 쏘면서 《뚜르륵…뚜르륵…》 하고 늘 골짜기에 속시원한 사격 소리가 울리게 하였다.…

이렇게 이들 네 명은 아군 전연의 최전방에서 악을 쓰며 달라붙는 놈들을 모조리 쓰러눕히면서 보병들과 한 덩어리가 되여 1,211 고지의 관문인 무명 고지를 영예롭게 지켜 냈다.

그들이 영웅적인 1,211 고지 전투를 마치고 뒤로 들어 왔을 때 그들 네 명의 넓은 가슴에는 《전사 영예 훈장》과 군공 메달들이 세네개씩 달려 있었다. 그것은 당과 인민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한치의 땅도 원쑤들에게 내주지 말라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영예를 말하는 것이다.

실로 그들은 자랑하고도 남을 《전투의 열쇠였으며 자물쇠》였다.



내님한 영웅들

대안 전기 공장 변압기 직장 림 병규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5 만 크바의 대형 변압기를 만들어 냈다.

대형 변압기를 자체로 더 많이 만들데 대한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단 20일 동안에 5만 크바의 변압기를 만들어 낸 그들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 힘에 대한 신념

—5만 크바의 대형 변압기를 20일 동안에 조립 완성—

이 전투적 과업은 림 병규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 아니 전 공장을 흥분으로 휩싸이게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종전 같으면 1만 크바의 변압기를 조립하는 데도 실히 반년이라는 시일이 걸렸다. 그런데 그의 5배나 되는 대형 변압기를 자체의 힘으로 불과 20일 동안에 만들어야 한다. 만일 이 기일을 보장 못한다면 본궁에 건설되는 가성소다 공장이 제 시일 내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곧 직물 2억 5천 만 메터 고지 점령에 큰 지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주저도 없이, 동요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재로 5만 크바 변압기를 만드는 전투에 뛰여 들었다.(당이 제시한 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야 한다.)

모든 심장들이 이렇게 고동쳤다.

어느날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수상 동지가 직접 자기 직장을 오셔서 앞으로 대형 변압기들을 자기의 손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써야 하겠다고 교시하신 그 뜻 깊은 장소에 모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연길 폭탄》에 대한 회상기 모임을 가졌다. 열렬한 토론들이 계속되였다. 모두다 항일 빨찌산들처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맡겨진 전투 임무를 기어코 완수할 전투적 결의들을 다지였다.

모임이 끝나자 어느 듯 시작된 우렁찬 합창 소리는 전 직장을 진동시켰다.

……………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그들은 태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 기세로 일에 달라 붙었다.

난관은 첫 걸음에서부터 부디쳤다. 변압기를 조립하자면 우선 밑바닥에 받칠 철심 조립 공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커다란 새 공구를 종전 방법으로 만들자면 한달이 가까운 시일이 요구되였다.

한달 동안에 공구 하나를! 그러면 변압기는 어느 세월에 만든단 말인가!

결코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열렬히 토론을 하고 론쟁도 하였다.

장 성복 동무는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으나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당과 수령 앞에 자신들이 맹세한 전투 임무가 아닌가!)

생각할 수록 그의 가슴은 안타까웠다. 끝내 그는 잠'자리에 누워 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났다. 책상에 마주 앉은 그는 각종 도면을 그려 보고는 긋고 또 그리고는 그으면서 밝아오는 려명도 모르고 심혈을 기우렸다. 책상우에 놓인 백지들에는 수 많은 선들과 동그라미, 삼각형과 사각형이 그어져 갔다.

이렇게 몇날 밤이 계속되는 피나는 노력끝에 그의 머리에는 구형강(단면이(ㄷ)형으로 생긴 형강)을 조립하여 공구 대신에 쓸 수 없을가 하는 생각이 떠 올랐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 철심만 해도 30 톤이 넘는 변압기의 무게를 과연 견디여 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나지를 않았다. 그는 초보적인 도면을 그려 기술부에 가져갔다. 저녁무렵에 기술부 동무가 막 그에게로 달려왔다.

《성복 동무 축하하오. 력학적으로 세밀히 타산해 본 결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렸소.》

이 소식을 들은 민청원들은 모두다 우루루 달려와 그를 높이 추겨 올리며 환성을 올렸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새 문제가 제기되였다.

곧 일을 시작해야겠는데 한 두개도 아닌 수많은 구형강을 어디서 구해 올 것인가? 현재 자재 공급부에도 구형강이 긴장되고 있는 형편이다.

《자!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없는 것은 찾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봅시다.》

민청 분조장 로 준형 동무가 이렇게 말하자 모든 민청원들이 찬동해 나섰다.

이리하여 그들은 집채같은 파철 더미를 온통 뒤엎다 싶이 하면서 한 두개의 구 형강을 구해 오기도 하고 또 옛'일을 더듬어 가면서 그것이 파묻쳐 있음직한 곳에 가서 땅을 깊이 파 끌어 내기도 하였다. 또 다른 동무들은 각 직장과 작업반을 훑으면서 짤라 쓰다가 남은 구형강 토막을 찾아 오기도 하였다.

무엇이 든지 마음만 먹으면 되는 법이다. 문제는 우는 소리를 말고 마음을 든든히 가져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마침내 그들은 새 공구를 만들 수 있는 구형강들을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한달이 걸릴 일을 단 이틀 동안에 해 내였다.

머리를 써야 한다

철심 조립이 끝났다. 다음은 변압기에 권선 뭉치를 설치하는 일이다. 이때 그들 앞에는 또다시 뜻하지 않는 난관이 닥쳐 왔다. 권선 뭉치를 설치하자면 그것이 감기여 있는 원통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5만 크바의 권선 뭉치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종전대로 기중기에 매달아 망치로써 치는 방법으로써는 뽑아내기가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억지로 한 개 원통을 뽑아 보니 옹군 48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 6 개나 되는 권선 뭉치의 원통을 다 뽑자면 그것만 해도 12 일간 이라는 시일이 걸려야 하는 것이다. 어떤 동무들은 인원수를 더 불궈 계속적인 망치질을 드리댐으로써 시일을 앞당기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써도 도저히 제 시일 내에 변압기를 조립 완성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머리를 써야 했다.

이 때부터 장 필영 동무를 비롯한 전체 성원들은 한시도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권선 뭉치를 샅샅히 살펴 보면서 그 어떤 대책이 없는가 하고 고심도 해 보고 똑 같은 모형을 밤 새워 만들어 실험해 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새 작업 방법을 창안하기 위하여 수십 번의 실험을 거듭하였다.

한 번은 실험 과정에서 그만 모형을 땅 우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때 권선과 모형 사이에 끼워 둔 쐐기가 빠지면서 권선이 슬며시 빠져 나왔다. 여기에 주의를 돌리고 바라보던 필영 동무의 머리 속에는 새 묘안이 떠 올랐다.

(옳지! 원통보다 권선의 무게가 더 무거우니 바깥 권선에 줄을 맬 것이 아니라 원통에 줄을 매자. 그리고 기중기로 받쳐 들고 쐐기를 뽑으면 권선은 절로 떨어지고 원통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닌가?)

마음은 나래가 돋친듯 하였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하고 그는 작업장을 뛰여 다니며 환성을 올렸다.

이리하여 마침내 그는 남어지 5개의 원통을 불과 8시간에 다 뽑아 내는 공훈을 세웠다.

그들은 이렇게 집체적인 지혜를 짜 내여 400여줄의 동선을 한 미리의 편차도 없이 짜내야 하는 인출선도 다른데서 받아 올 것을기다리지 않고 기계도 없는 조건에서 끝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고야 말았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마지막 고비가 가까워 올 수록 일은 더욱 긴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럴수록 그들 사이에는 힘든 일은 자신이 담당하며 서로 돕고 이끌고 나가는 혁명적 생활 기풍이 높아갔다. 앞선 동무는 뒤떨어진 동무를 돌보고 뒤떨어진 동무들은 앞선 동무를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어느날 아침에 있은 일이다. 탈의실에 작업복을 갈아 입으려 들어가는 동무들마다 어리둥절해 졌다. 어지럽던 작업복들이 백설같이 세탁되여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는가! 자기 작업복이 어느 것인가를 찾기 힘들 형편이였다.

(누가 이랬을가?)

썩 후에 안 일이지만 이 일은 작업반에 온지 얼마 안되는 김 화자 동무가 한 일이였다. 그는 기능이 어린 자기로써 그 무엇인가 일에 바쁜 다른 동무들을 도와 주지 못할가? 하고 안타까이 여겨 오던 남어지 하루 밤은 그들의 작업복을 남몰래 깨끗이 세탁해 말려 두었던 것이다.

물론 작업반원들 호상간에만 이런 방조가 있은 것은 아니였다.

어느날 저녁, 일흔 가까운 장 필영 동무의 어머니가 보위대실을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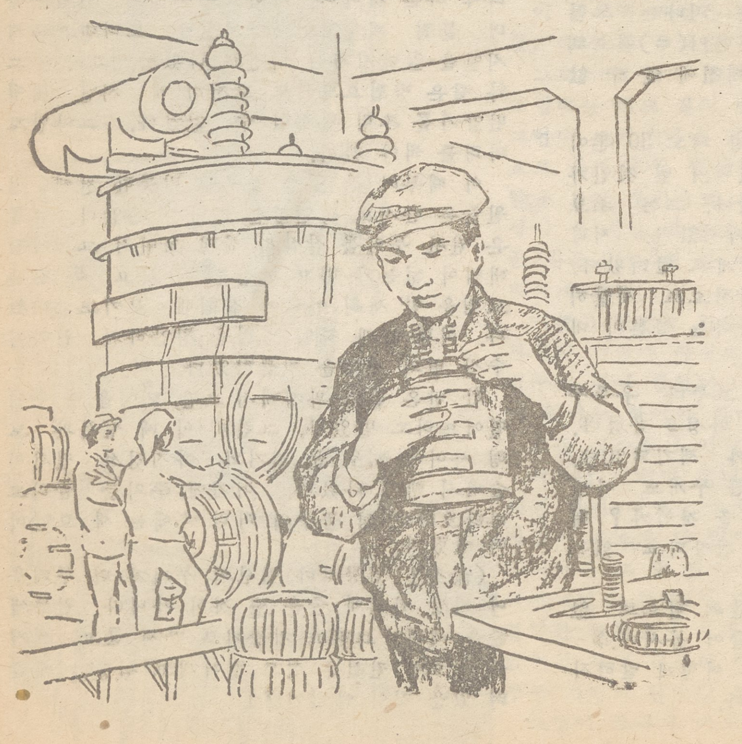
그의 손에는 큼직한 밥곽이 들려져 있었다. 보위대원들이 찾아 온 사연을 묻자

《내가 직접 일을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왜 못해 주겠나…》

사실 그는 자기 아들이 밥 먹으려 오가는 시간에 조차 5만 크바의 변압기를 만드는 데 지장을 줄가봐 오리도 넘는 밤길을 걸어 아들의 저녁 밥을 가져 온 것이였다. 보위대원은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그럴수록 청년들의 사기는 더욱 충천해 갔다.

작업의 마지막 공정인 변압기 중간 철심을 조립하는 공정에 들어 섰을 때의 일이다. 이 공정은 노전만한 넓은 큰 강판을 수천 개나 합쳐 조립하면서도 그 오차는 불과 미리를 다루는 세밀한 일이라 여기에는 여간만한 높은 기능이 요구 되지 않았다.

민청 분조장 로 준명 동무는 이 일의 곤난성을 미리 예견하고 조립 공정을 사전에 연구하였으며 조립 방법을 여러가지로 구상하여 실지 동작도 해 보았다.



철심 조립을 하는 날, 그는 주저 없이 변압기 꼭대기에 뛰여 올라 능숙하게 이 일을 해 내였다.

끝내 그들은 그렇게도 어렵다던 중간 철심 조립도 오차 없이 훌륭히 해 내고야 말았다.

…그들이 대형 변압기 조립을 20일 만에 완공한 날 공장 당 위원장 동무는 그들의 손을 잡아 흔들며 말했다.

《장하오…그 대형 변압기는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동무들이 발휘한 자력 갱생의 높은 혁명 정신이 낳아 놓았소.》

본사 기자 하 만 춘

지상강좌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 (2)

최 북 성

북반부에서는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사회주의 혁명이 완전히 승리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조국 남반부는 계속 미제의 식민지 예속 하에서 일제 시기와 마찬가지로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남아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직도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의 혁명 과업과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의 반제적 과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적 발전이 불가능하며 민족적 불행과 고통이 계속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에서의 사회적 계급적 모순도 해결될 수 없다.

우리 조국이 남북으로 량단되고 남반부가 류례없는 파쑈적 테로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 기아와 빈궁이 지배하는 암흑의 천지로,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된 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비저낸 후과이다.

해방 후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없었더라면 남반부도 이미 오래전에 북반부와 같은 제반 혁명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이며 우리 조국은 통일된 사회주의 강국으로 륭성 발전하였을 것이다.

미제는 남반부를 강점한 첫 날부터 일제 통치 기구를 재생시키고 조선 인민의 원쑤인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을 규합하고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조직된 인민 위원회와 애국적 민주 력량을 탄압 말살하였으며 일제 시대의 식민지 통치 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재편성하였다. 따라서 일제 통치 시기와 마찬가지로 남조선의 사회 경제 구성과 계급 구성에는 본질적 변동이 없었다.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로 재 편성되면서 일어난 변화란 다만 지주, 예속 자본가 계급이 괴뢰 정권에 들어 앉아 미제에게 국토와 민족을 팔아 먹는 대'가로 더많이 치부할 수 있는 반면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는 제국주의적 봉건적 압박과 착취 밑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 정치적 무권리와 극심한 생활난이 날로 심화되여 가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에는 미제와 그리고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광범한 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량자간의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치렬한 계급 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 발전되여 가고 있다.

해방 후부터 오늘까지 남조선의 로동 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은 북조선 인민들이 달성한 제반 성과에 고무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나라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이 정당한 투쟁은 원쑤들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았으며 대중적 항쟁들은 피 바다 속에 잠기였다.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 것은 1960년 4월 남조선 전 지역에서 일어난 대중적 봉기이다.

4월 봉기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수적 학정하에서 서리고 서리였던 인민들의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자유와 해방, 새 정치, 새생활을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이였다. 이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주구 리 승만 괴뢰 정부는 전복되였다.

4월 봉기는 남조선 인민들이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승리였으며 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 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였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의 4월 인민 봉기는 끝까지 철저하게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원인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 당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 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 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월 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주구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 주요 문헌집 102~103 페지)

그러나 4월 인민 봉기는 남조선 로동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으며 그들의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이 투쟁 과정에서 그들은 미제의 침략성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그와 함께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에 궐기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능히 쳐부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인민 봉기 후 남조선 근로자들과 인민들의 반미 투쟁과 계급 투쟁이 더욱 장성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군사 파쑈 도당들의 계엄령 하에서도 파업과 태업, 롱성과 습격, 집단적 항거 등등의 각종 투쟁을 통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4월 인민 봉기 이후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은 미 제국주의가 <정권>의 <합법적> 교체로써도 직접 폭력에 의한 테로적 독재의 수립으로써도 남조선의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를 수습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함께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 인민들이 완전한 민주주의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이 투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투쟁은 반드시 철저한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투쟁으로 되여야 합니다.》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 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23 페지)

이 혁명의 기본 요구는 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우리 강토에서 구축하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며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투쟁의 첫째 가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며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이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우리 조국의 통일 위업 앞에 가로 놓인 가장 큰 장애이며 오늘 남조선 인

민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 있다. 미제놈들 때문에 남조선의 산업과 농촌 경리는 송두리채 파괴 되였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 놈들은 무수한 애국적 인민들과 무고한 동포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있으며 부녀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만행을 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는 《공산주의 침략》을 떠벌리며 전쟁 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 침략자들을 우리 조국 강토에서 내 몰지 않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도, 우리 조국의 통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 인민의 원쑤는 지주, 예속 자본가, 반동적 관료배들이다. 이 자들은 제국주의의 주구로써 미제의 조선 침략의 앞잡이로 되고 있다. 지주 계급은 미제의 비호하에 반동적인 봉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억압하고 있다.

예속 자본가들은 미제의 잉여 상품과 자본을 끌어 들이며 우리 나라의 자원을 략탈하고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혹독하게 착취하여 자기 상전의 돈 주머니를 불리면서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있다. 이 자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 먹음으로써 미제 침략자들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자기들의 더러운 여명을 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반드시 그의 주구들인 지주, 예속 자본가, 반동적 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여야 한다.

그러면 이 혁명 투쟁의 동력은 누구인가? 어떠한 계급과 계층들이 이 투쟁을 추진시키는가?

우선 그것은 가장 착취 받고 압박 받을 뿐만 아니라 계급적 처지로 보아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로동 계급이다. 이러한 로동 계급은 반제 반봉건적 투쟁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그의 향도적 력량이다.

다음으로 이 투쟁을 추진시키는 중요한 력량은 제국주의적 략탈과 봉건적 착취등 2중 3중의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그 수로 보아 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농민이다. 이러한 농민은 반제 반봉건 투쟁에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 된다.

그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그 주구들의 반동 통치로 인하여 날로 령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도시 소부르죠아 계층이 이 투쟁의 동력으로 되며 량심적인 민족 자본가들 까지도 반제 반봉건 투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남조선에서의 혁명 투쟁은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정치 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려진 북반부의 혁명 기지가 있으며 우리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인민 대중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의 한결 같은 성원이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선량한 인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하에 튼튼히 집결시키며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력량과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력량과의 확고한 단결을 이룩한다면 적들이 제아무리 발악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그를 타승할 수 있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전국적 규모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하며 우리 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위업인 조국의 완전 통일을 달성함에 있어서 그의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우리 혁명의 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 있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는 비단 조국 통일을 쟁취하는 결정적 력량으로 될뿐만 아니라 조국 통일이 실현된 이후에 남반부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될 것이다.》 (김 일성 선집 4권 201～202페지)

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내외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였다.

세기적인 혁명 과업이 승리적으로 수행된 결과 북반부의 계급적 구성과 각 계급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로동 계급은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렬이 더욱 확장되고 국가 사회 생활에서 그의 지도적 역할은 더욱 제고되였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날의 학대 받고 천대 받던 소작농이 아닌 것은 물론 어제'날의 분산적인 개인농도 아니며 협동 경리에 망라된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이다.

자본주의적 상공업과 도시 수공업자들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다.

수많은 새로운 인테리들이 육성되고 오랜 인테리들이 개조됨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복무하는 사회주의적 인테리의 대부대가 형성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지주 계급도 없고 자본가 계급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영원히 청산 되였다.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대중의 통일과 단결은 그 어느때 보다도 공고히 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당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천리마를 탄 기세로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일이 잘되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계급 투쟁에 대하여 더는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은 계급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는 세계 반동의 괴수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으며 우리 조국 남반부에 반인민적인 파쑈 테로 통치가 수립되여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놈들은 북조선에서 달성되고 있는 매개의 성과들을 증오하고 있으며 그를 파탄시키려고 갖은 음모와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리하여 계속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잠입시키려고 날뛰며 발붙일 틈을 찾아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놈들은 각종 반동 사상을 류포시키면서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 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도 착취 계급, 반동 계급은 없지만 전복된 착취 계급의 잔존 분자들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악질적 분자들은 계속 우리 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런 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체험한 바와 같이 우리가 곤난한 형편에 처할 때에 머리를 추켜들고 반동적 착취 제도를 복구하려고 미쳐 날뛰는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을 늦추며 수정주의자들이 떠벌리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는가?

의심할바 없이 그것은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며 원쑤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계급적 원쑤들이 남아 있는 한 그리고 혁명의 승리가 완성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급 투쟁을 멈출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항상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파괴 암해 책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해야 하며 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전체 인민들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꾸림으로써 원쑤들이 그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발 붙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주되는 원쑤인 미제와 그의 주구들이 결탁할 수 있는 낡은 부르죠아 사상과 수정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현 시기에 있어서 계급 투쟁의 한 형태로서의 사상 투쟁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의 사상 투쟁은 적대 계급의 최후의 안식처인 낡은 사상 잔재에 대한 공세이며 전체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투쟁이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부르죠아 사상, 수정주의 사상 및 반혁명 사상과의 투쟁이며 적들의 어떠한 침공이라도 격퇴할 수 있도록 우리 인민을 계급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자신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부화와 안일을 반대하여 검박하게 생활하며 긴장된 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면 될수록, 혁명적 정신으로 무장하면 할 수록,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 성과가 크면 클수록 원쑤들에게는 보다 큰 타격으로 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투쟁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시기,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위대한 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으며 특히 그 투쟁의 최선두,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에 서 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그 어떤 세대 보다도 더 무겁고 영예로운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기의 계급적 립장을 더욱 확고히 하며 혁명적 각오 정도들을 부단히 높임으로써만 이 영예로운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모두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되여 우리 당의 혁명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충천하는 혁명적 기세로써 투쟁해 나아 갈 때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영광의 대오에 근위 기'발 휘날린다



숙천 땅에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창설된지 1 년—

그의 위대한 생활력은 현실에서 풍만한 열매를 맺았다. 그것은 농촌 기술 혁명의 촉진과 농업 생산의 전례 없는 앙양에서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술, 문화, 정신, 도덕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숙천군 소은 협동 농장의 농장원들과 청년들의 생활에서도 이것을 여실히 찾아볼 수 있었다.

과학은 승리하고 《하느님》은 패배했다

김 종엽 로인의 조상들은 이 바다'가 마을에서 150 여 년 전부터 7 대를 살아 왔었다.

70 가까운 이 로인은 이 벌에 대한 오랜 력사의 증견자이다.

기자가 찾아 갔을 때 로인은 집 뒤 언덕에 올라서 벼'동배기들이 별처럼 촘촘히 박혀 있는 풍요한 백리'벌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 열두 삼천 벌이 옛날엔 물이 없어서 불모의 땅이였다우. 열두번 밭고랑을 타고 넘으며 농사를 지어두 10 년이면 7 년 흉작을 본다는 곳이우다.》

하고 로인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백일 치성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나뜬 동전만한 구름'장에도 온 희망을 걸든 세월, 그러다가 그 구름'장마저 살아지면 오장륙부가 다 녹아나는 것 같았다오.

게다가 농사라고 지어 놓으면 리 은섭이라는 지주놈께 몽땅 빼앗기고 타작마당엔 비'자루 하나 밖에 남지 않았다우. 그 놈의 빚 단련에 20 여호가 고향을 떠나 동북으로 갔고 10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으니 그런 고약한 놈이 또 어디 있겠소. 겨우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도 살'길이 없어 매생이를 타고 바다에 나가 굴과 고기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근근하게 연명 했지유.

자 그러나 오늘 이벌을 보시우. 우리 로동당과 수상님이 평남 관개를 건설하여 물을 보내 주고 기계가 밭을 갈고 약으로 김을 매니 금년같은 한재, 수재, 큰 풍해에도 만고 대풍이 들었수다. 옛날 같으면 낟알 한 이삭 구경하겠수. 그러니 우리 로동당 시대에 와서는 하느님조차 오금을 못쓰우다.》

과연 로인의 말이 옳다. 이젠 《하느님》이 농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농사를 좌우한다. 이를테면 과학은 승리하고〈전능〉한 하느님은 참패하였다.

특히 지난해 수상님께서 숙천 땅에 오시여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창설한 후 과학과 기술의 힘은 더욱 유감없이 발휘되였다. 하여 근위 2급의 영예를 지닌 이곳 소은 협동 농장은 전년보다 1,100 톤의 증수를 걷우어 또다시 근위 기'발을 힘차게 휘날리게 되였다.

농사가 잘되니 사람들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금년에는 농호당 평균 6 톤 이상의 분배를 타며 리 민청 위원장 리 홍만 동무네 집에서만도 18 톤의 알곡을 분배받는다. 18 톤! 당년에 다섯 식구가 10 여년간 먹을 것을 번'셈이다. 그러기 집집마다 라디오, 재봉침, 이불장, 옷장, 가시장이 장만되였다. 지어 1작업반 38 명의 청년들이 한해 동안에 빠짐 없이 손'시계를 샀다니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북촌, 농교, 토교등 부락마다 200 여 동의 고래등같은 기와집들도 늘어섰다. 어제'날 눈물의 동네, 죽 동네로 이름이 높던 곳이 오늘은 일등 부촌이 되였다.

새로운 지향

《모두가 뜨락또르의 운전 기술을 배우자…》

이것은 오늘 농촌 청년들의 한결 같은 구호다.

벌써 이곳 협동 농장에서는 김 복만, 박 명호, 김 인철, 김 우남 등 15명의 청년들이 뜨락또르를 몰게 되였다.

한편 리 민청 단체에서는 련'이어 민청원들을 매개 뜨락또르의 조절수로 배치하여 그의 운전법을 배울 방도를 열어 주고 있다. 새롭고 강력한 지향에 불타는 젊은이들은 운전수들의 일을 도와 주면서 짬짬히 그의 운전법을 배우고 있다. 기실 뜨락또르 운전 기술이란 신비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다.

《모두가 뜨락또르 운전 기술을 배우자…》

이것은 오늘 사회주의 농촌에 사는 모든 청년들의 새롭고 강력한 지향으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 속에서는 농업 기술의 전반에 걸쳐 깊이 심화된 지식을 체득하려는 뜨거운 열망이 한층 더 거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여기에《평범하지 않은 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저 한다.

김 순실—그는 올해 스므살 난 처녀다. 그는 인민 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했다. 그러나 처녀는 벅찬 현실 속에서 날마다 발전해 나갔다.

그는 협동 농장원이 된지 1 년만에 선동원이 되였고 다시 1 년 후에는 민청 분조장으로, 또 그 다음해에는 리 민청 부위원장이 되였다. 처녀에게는 평온한 날이 없었다. 위대한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고도의 책임감이 그를 앞으로 앞으로 떠 밀었다. 그는 항상 달리며 살았다. 이런 사람은 흔히 빨리 전진하는 법이다. 생활이여!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어느날 리 당 위원장이 그를 불렀다.

《순실 동무! 한번 농산 기수 검정

시험을 쳐 보우. 먼저 토양학이나 작물학부터 학습하는게 좋겠소.》

《위원장 동무 작물학이란 뭐나요?》

처녀는 어리둥절 하였다. 인민 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그가 《작물학》이란 말을 못알아 듣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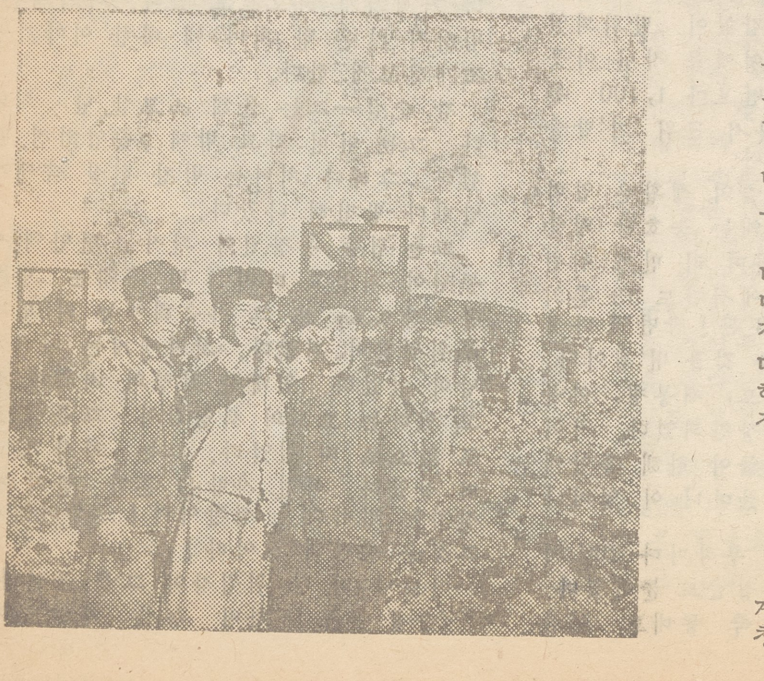
《그건 지금 동무가 하고 있는 농사에 대한 학문이요. 그러니 뭐 신비할 것두 없지. 어디 한번 해 보우.》

《네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처녀는 기술 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들을 구해다 짬짬이 보기 시작하였다. 보다가 모를 것이 있으면 협동 농장의 기사나 기수도 찾아 갔었고 나어린 기술 학교 학생들에게도 물어 보았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데야 무슨 층하가 있으랴 하는 심정에서였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작물학이나 토양학은 매우 리해되기 쉬웠고 또 학문이 깊어 갈 수록 여간만 재미 있지 않았다. 화학의 힘, 유기질 비료의 힘, 이런 미지의 문제가 점점 뚜렷해 갔다.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농사를 짓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였구나. 지금 농사는 기술이 없이는 지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처녀는 더욱 학습에 열중하였다. 회의장, 구락부, 차'간 그 어디에서나 책이 손에서 떨어져 본 일이 없었다. 비오는 날에는 우산 밑에 책을 들고 걸으면서까지 다소곳이 읽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순실 동무는 떨리는 가슴을 붙안고 시험장에 나섰다. 그는 여기에서 조선 로동당 력사 과목과 작물학을 최고 점수로 합격했는데 시험관은 그가 인민학교 밖에 다니지 못한 것을 알자 감동되여 부르짖었다.

《동무야말로 천재요.》

인민 학교 졸업생이 1년 동안에 기수 시험에 합격!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못해 낼일이란 없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오늘의 농사는 옛날의 농사가 아니다. 물, 기계, 비료, 농약 등 복잡한 기술 공정을 걸쳐 진행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청년들이 높은 기술 문화를 소유하지 않고서야 무슨 농사에 대하여 론할 자격이 있으랴! 그러기 지금 소은 협동 농장내 청년들은 147명이나 앞을 다투어 기술 학습에 망라되였고 그중 62명의 기수 시험 일부 과목 합격자를 내였다. 이제 몇해 후이면 이 마을에서도 백명 이상의 기사 기수들이 배출되여 믿음직한 청년 기술 집단이 형성되리라.

(모두다 농업 기술을 배우자! 기술 없이는 농사도 못한다.)

이 역시 이 마을, 아니 우리 시대 농촌 청년들의 일치한 심정이며 강력한 시대적 지향이다. 청년들은 오늘 이 지향을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고 있다.

가장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 의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심화 발전은 사람의 정신 생활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놓았다. 우가 아래를 돕고 동지 호상간 협조하고 남녀 로소 서로 떠받드는 미풍이 도처에서 꽃피여 났다.

포전마다 필지마다에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일'군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들은 필지별로 카르를 만들었으며 기술과 자재를 가지고 내려 와서는 성심껏 밑에 일군'들을 도와 주었고 군중들과 상론하였다. 관리 위원회 일'군들도 사무실을 떠나 군중들속에서 살면서 그들이 어려워 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주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열성은 더욱 비등되였다.

지난 10월에 있은 일이다. 《추수 전투》가 마지막 고비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 공교롭게도 먹장 구름이 떠돌더니 갑자기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 치기 시작하였다. 제 5 작업 반장은 후드득 거리며 창문을 때리는 비'소리에 잠을 깼다. 그의 가슴엔 커다란 근심이 회오리쳤다. (다 영근 낟알을 떨구면 어쩌노?)

그의 눈앞에는 차돌같이 여문 낟알들이 땅 우에 떨어져 한벌쭉 깔린 참경이 똑똑히 떠올랐다. 그는 이불을 차고 일어 났다. 잠시 후에는 그의 그림자가 열씬열씬거리며 채 걷우지 못한 포전을 향해 쏜살 처럼 달렸다.

창'살같은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달걀 같은 우박이 총알처럼 사정없이 그의 면상을 후려 갈겼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조급하게 달렸다.

그런데 그가 현장에 당도해 보니 거기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분주히 뛰여다니고 있지 않는가?

《거 어느 동무들이요?》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저희들이예요. 벼가 쓰러질가봐 이래요.》

민청원 김 순애의 목소리였다. 그는 쓰러질려는 벼를 붙안고 섰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의 두뺨으로는 눈물인지 비'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의 민청원도 빠짐없이 나와 있었다. 작업반장은 그만 가슴이 뭉클하였다. 보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잠'자리를 털고 폭풍우를 무릅쓰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달려 나온 새날의 청춘들, 이들이야말로 참된 협동 농장의 주인, 생산의 주인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벌써 우리 시대는 대중이 생산을 관리하며 거기에 비상한 관심을 돌리는 시대로 되였다.

비는 한층 더 세차게 담아 부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용진가》를 부르고 고함도 지르면서 샐녘까지 벼'짚으로 방풍 대책을 취해 놓았다.

이런 일은 비단 청년들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청원 리 봉녀 동무네 집에서는 자급 비료 반출을 위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의 삼각 경쟁이 벌어 졌었고 당년 85세의 고령인 리 득수 할머니는 《이런 좋은 세월에 내라고 어찌 가만히 있겠소!》라고 하면서 손발구를 만들어 끌고 다니면서 산분 2톤 500이나 수집해 정성껏 농장에 바쳤다.

× ×

지금 이곳 협동 농장원들과 청년들은 새 전투에 나섰다. 명년에는 농사에 전력하여 정당 6톤의 소출을 내리라!

알곡의 질적 구성을 높이기 위한 발벼 50 정보를 심을 준비도 되였다.

기후 풍토에 맞는 《중생 은방주》 우량 종자도 확보되였다.

정당 70톤을 낼 방대한 자급 비료도 마련되였다.

3작업반이 있는 곳에서는 평남 관개의 퇴수를 막아 숙천 평원에 6,500여 정보의 밭을 논으로 풀고 2,000여정보의 서해안 간석지들에 생명수를 보낼 위대한 대자연 개조 사업—해창강 관개 공사가 한창이다. 그곳에서는 영웅적인 우리의 로동계급이 대담하게 5만산을 폭발시켰다. 그 소리 하늘을 진감하여 해창강도 서해도 몸부림쳤다.

자! 뜨락또르들은 보수 점검을 끝내고 전투 준비를 완료하였다.

모든 심장들이 들끓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달리고 있다.

모든 고리들에서 준비가 다 되였다.

돌격 앞으로! 소은리 청년들은 근위기'발을 휘날리며 나간다.

본사 기자 한 희만

성격과 교양

황 영 식

편 집 부 앞

나에게는 둘도 없는 친근한 벗이 있습니다.

이 동무는 학습과 로동 생활, 모든 부문에서 성실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동지 호상 관계에서 과격하고 성을 잘 내여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있습니다. 충고를 하면 이 동무는 몹시 난처해 하면서 《본래 성격이 그렇게 돼 먹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격이란 그렇게도 고칠 수 없는 것일가요? 만일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편집부의 조언을 바랍니다.

평안남도 덕천군

윤 동 산

윤 동산 동무가 제기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그런 동무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이런 동무들은 성격이라는 것을 타고난 천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격은 과연 타고난 것이겠는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선 성격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생활에서 자기가 속하고 있는 사회와 집단에 대하여, 로동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러가지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된다.

즉 동지에 대하여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표시하며 또한 일에 대하여 성실하고 심중하며 시작한 일을 끝까지 관철하는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고 자기의 사업과 행동을 늘 반성하고 그릇된 행동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을 시정하는 자기 비판적 태도, 국가 공동 재산을 소중히 하며, 아끼고 절약하며 검박하게 생활하는 태도 등을 나타낸다.

또 이와 같은 태도에서 출발한 행동도 그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꼭 같은 것은 아니다. 례하면 로동에 충실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대담하고 박력있게 일을 처리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 조용히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해 나간다. 이렇게 매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주위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태도, 사업과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 개인적인 특징들을 가진다.

이러한 태도의 특성은 매 개인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에서 표현된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하고 례절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행동에서도 항상 례절 바르고 겸손하다.

성격이란 바로 주위 세계의 사물과 현상,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 또한 사업과 로동에 대한 태도를 특징지으며 이러한 특징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 방식에서 표현되는 심리적 품성들의 독특한 결합이다.

그런데 성격은 일시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으로 된 개인적 특성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때 한번 겸손했다고 하여 겸손성이 그 사람의 성격상 특성으로 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겸손한 것이 습관으로 되였을 때 겸손한 것이 이 사람의 성격상 특성이라고 말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격은 주위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공고화된 태도의 특성인 것 만큼 성격이 타고난 천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성격이 타고난 천성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태여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벌써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 사람, 혹은 거만한 사람, 일에 대하여 성실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등으로 서로 구별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도, 근면한 사람도 없다. 즉 성격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실천 생활 행정에서 교양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공고화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여 사람들은 같은 일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사상 관점, 그리고 매개인의 발전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태도는 그의 사상 관점을 표현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 관점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계급에 소속하여 생활하며 어떤 지배적인 사상에 의하여 교양되는가에 달린다.

즉 사상 관점은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을 반영하며 교양의 영향 하에 형성된다. 사상 관점, 세계관이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을 반영하여 교양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만큼 그와 밀접히 결부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도 사회 력사적 성격을 가진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 계급들의 성격상 특성과 로동당 시대의 사람들의 성격상 특성은 전혀 다르다. 착취 계급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태도, 랭혹한 리기주의적 타산, 몰렴치한 착취, 부화 방탕, 무뢰한, 패덕 등이다. 작가 리 기영이 자기의 소설 《고향》에서 형상화한 지주 안 승학이나, 소설 《두만강》에서 형상화한 지주 한 길주와 같은 인물들의 성격상 특성은 바로 이러한 실례로 된다.

로동당 시대의 새 인간들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 자기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충성심,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배려, 로동을 사랑하고 즐기며 국가 사회 재산을 아끼며 례절 밝고 겸손하며 소박하고 검박한 생활, 이 모든 정의롭고 아름다운 품성을 다 한몸에 갖추고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들이다. 길 확실, 김 수복, 리 신자, 리 홍렬과 같은 로동당 시대의 천리마 기수들은 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일정한 력사적 시기에 같은 사회적 조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의 사회에 특징적인 사회적 조건과 지배적인 사상의 영향을 반영하여 공통적인 성격상 특성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공통적인 성격상 특징을 전형적 성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전형적인 특성들과 함께 무한히 각이한 성격상 특성을 가진다.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란 없다.

이 사실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같은 사회적 조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의 가정 조건, 그의 교육적 환경, 그의 생활 경험, 직업과 교양 정도가 각이하기 때문이다. 성격은 이러한 생활 조건과 생활 행정을 또한 반영한다.

매 개인의 성격에는 또한 민족적 특성이 반영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혁명성이 강하고 남보다 앞서 나아 가려는 혁명적 기질이 풍부하다. 하나를 알아도 흐리터분하지 않고 백지에 써 놓은 글씨와 같이 분명히 아는 명석한 지성을 가진 인민들이다. 이러한 민족적 특성이 우리들 매개인의 성격에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매개인의 성격상 특성은 그의 사회적 처지를 반영하는 특성들, 개인의 생활 경로를 반영하는 특성들, 민족적 특성들의 복잡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 특성이다.

성격은 이렇게 복잡하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성격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사회 생활 행정에서 교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윤 동산 동무의 편지에 지적된 동무의 성격은 《본래부터 그렇게 돼

먹어서》가 아니라는 것, 즉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 결함이 있는가?

성격상 결함은 중요하게는 그 사람의 사상 교양적 결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성격상 결함을 고칠 수 있는가?

성격이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격은 생활 실천 행정에서, 교양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의 수양 여하에 따라서 고칠 수 있다. 윤 동산 동무가 편지에서 제기한 그 동무는 동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결함이 있다면 그것이 《타고난》 것이라고 난처해 할 것이 아니라 자체 수양을 강화하여 고쳐야 할 것이다.

좋은 성격을 배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성격에는 그의 사상 관점이 표현되는 것 만큼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으로 자체를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체를 무장한다는 것은 사회 발전 법칙 즉 자본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필승한다는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우리 혁명의 정당성과 그 위업의 필승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따라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높은 계급적 자각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으로 무장할 때 어떤 풍파에도 동요함이 없이 당과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며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과 품성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으로 무장하자면 우선 학습을 잘 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자체를 무장하자면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재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식이 많아야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을 심도있게 리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이 리론 학습만으로 그쳐서는 강의한 성격을 형성할 수 없다. 강의한 성격은 꾸준한 학습과 함께 혁명적 실천 과정에서 단련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항상 어려운 일에 앞장 서서 당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온갖 훌륭한 성격상 특성들을 갖추어야 한다. 진정한 공산주의적 성격은 로동 속에서만 단련된다. 로동 과정에서는 집단주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강의한 의지적 품성을 비롯하여 모든 정신적 및 육체적인 훌륭한 품성들이 형성된다. 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지 않을 때는 라태와 안일과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공통성이 없는 나쁜 품성들이 자라난다.

성격 형성에서는 모범이 큰 역할을 논다. 그러므로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여 항일 빨찌산들의 공산주의적 품성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

항일 빨찌산들의 고매한 혁명 정신과 백절 불굴의 투쟁 정신, 그리고 그들의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의 모범을 깊이 체득하고 그 분들의 모범을 본받아 이를 실제 행동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천 속에서만 훌륭한 행동 범절이 굳어져서 품성으로 화하고 공고한 성격상 특성으로 된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성격 수양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 생활, 민청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집단내에서만이 자기의 성격상 우결함을 더욱 똑똑히 알 수 있으며 집단의 생활 규범을 준수하는 과정에서와 동지적 방조 속에서 자체 단련을 잘 해 나갈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성격 교양에서는 자체 수양이 중요하다. 나어린 시기에는 주로 부모와 교원들이 성격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자신이 자기의 성격의 우결함을 알게 된다. 말하자면 자의식이 높아진다. 이 때로부터 성격 형성에서는 자체 교양이 큰 역할을 놀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혁명 투사들의 공산주의적 성격을 거울로 삼아 이에 비추어 자기 성격의 부족점을 똑똑히 인식하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굳어진 성격은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완강하고 인내성 있는 투쟁을 전개할 때에만 나쁜 성격을 버리고 좋은 성격을 배양할 수 있다.

영웅적 큐바 인민의 시 2 편



땅의 노래

(큐바)니꼴라스 길리엔

계속 전진!
계속 앞으로!
승리의 라팔 소리
하늘'가에 울려 퍼진다.
땅과 물, 바람
모두가 우리의 것
파종하는 손도 우리의 것이다.
우리 것!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의 단결을 깨뜨리지 못하리
돌려 세우지도 못하리
우리의 전진을.
승리가 아니면 죽음

죽음이 아니면 승리—
우리 인민은 죽지 않으리
승리하며 살아 나가리
우리는 이 땅 우에
사랑과 평화의 씨앗 뿌리며
우리의 싱싱한 꽃—
희망의 꽃송이를 가꾸어 가리
승리가 아니면 죽음
죽음이 아니면 승리
우리 인민은 죽지 않으리,
승리하며 살아 가리
살아 나가리!

큐바 토지 개혁 위원회의 노래 (강 학대 역)

115 대대 기관총 중대의 노래

미치광이들이 모험을 한다면
무력으로 침범한다면
민병들과 혁명군들은
놈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
하늘에서 날아 오는 놈이나
바다에서 기여 드는 놈이나
우리의 세련된 포들이
놈들을 돌아 못 가게 하리
동지들 필요하다면
우리를 백열전에 불러다오
115 대대의 민병들이
놈들을 모조리 까눕히리

원쑤들이 감히 달려 들거던
아예 용서는 바라지 말라
전투에서 원쑤를 모조리 쓸어 눕힘은
우리의 구호임을 알아 두라





의병대장 홍 범도

최 운학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의 국세가 허약한 것을 얕보고 나라를 강점하려고 하는데 정권을 잡은자들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친일 주구들이다. 이들이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 까지 일제와 결탁하여 매국 배족적 행위를 일삼는 이 때에 과연 누가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오랜 옛날 부터 왜적이 침략할 때마다 애국적 인민들이 의병을 조직하여 용감히 싸워 적을 우리 나라 강토에서 구축하지 않았던가! 만약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 안산사(현재 풍산군 노은리)에 그냥 있다가는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 우선 왜놈들이 후치령 이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907년 말 삼수 갑산의 여러 포수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한 이가 있으니 그 이가 다름 아닌 애국 의병장 홍 범도 였다.

의병 대장 홍 범도는 1868년 아름다운 전설과 옛'이야기를 담아 싣고 유유히 흘러 나리는 대동강'가의 평양, 홍씨의 빈한한 농가에서 태여 났다. 불행하게도 일찌기 부모를 여위고 고아로 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초와 풍파를 다 겪었다.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한 그는 그 후 진위대에 들어 갔으나 곧 탈주하고 대동강 금전'군으로 그 후에는 삼수군 세인당'골에서 화전을 일구어 생계를 유지하는 일방 화승총을 얻어 사냥을 하여 근근히 생계를 부지해 나갔다.

1905년 일제는 을사 5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에 통감 정치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07년에는 정미 7 조약을 체결하고도 부족하여 그 해 7월 조선 군대마저 해산하여 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사무치였다.

조선의 방방 곡곡에서 격분한 인민들의 투쟁은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 났다.

1906년 홍 범도는 《이리떼들 (일본놈)을 임진 왜란 때와 같이 독안에 든 쥐 모양으로 몰살시켜야 한다》고 여러 포수들에게 력설하면서 삼수 갑산 지방의 포수들과 해산 당한 군인들, 야장들과 평범한 농민들로 첫 의병대를 조직하였다.

때마침 1907년 11월 말 북청에 있었던 일본 수비대 놈들이 인민들에게서 빼앗은 무기를 말파리에 싣고 후치령을 넘어 온다는 정보를 받았다.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울 때는 왔다. 의병 대장 홍 범도는 후치령 파발리에

의병들을 삼개의 포진으로 배치하여 매복시켰다. 놈들은 추위에 웅송 거리고 매복 지점에 다가 왔다. 중간 포진과 전후에서 총성이 련'이어 일어 나자 적들은 독안에 든 쥐 같이 꼼짝 못하고 후치령의 까마귀 밥이 되고 말았다. 이 첫 전투에서 5 련발 8 정을 로획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그 후 몇 차례의 전투에서 북청 수비대가 거의 다 녹아 났다.

이 정보를 받고 약이 잔뜩 오른 일본놈들은 미야베(宮部)대위의 지휘 하에 소위《의병 토벌》에 나섰다. 이 놈들은 후치령 이곡(泥谷)에 도착하여 동리 책임자인 풍헌을 불러서 수비대가 잘 집을 마련하라고 호통을 쳤다. 풍헌은 놈들에게 류숙할 집을 고스란히 얻어 주고는 밤으로 후치령 홍 범도 의병대에 련락원을 보내였다. 련락원은 중도에서 의병대 통발'군(당시의 정찰병)을 만나 일본 수비대가 이곡에서 잔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의병대에서는 이 정보를 받고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가추어 후치령 고개턱에 매복하였다. 1907년 11월 25일 낮 11시 경에 적이 매복점에 도달하자 때를 놓치지 않고 신호 총성이 울렸다. 피괴하던 령마루는 총 소리와 놈들의 비명 소리로하여 수라장이 되였다.

이 전투에서 놈들의 시체만 하여도 30이 넘었고 수많은 부상자들을 냈다.

후치령 전투에서 승전고를 올린 홍 범도 의병대는 의기 양양히 삼수 지방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삼수성은 관북 지방의 요새지의 하나로서 1905년 까지만 하여도 북청 진위대의 일부가 있었던 곳이다. 홍 범도 의병대가 삼수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 놈들은 혼비백산하여 황겁히 도주 하였으므로 총 한방 쏘지 않고 삼수성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삼수성은 의병들의 튼튼한 근거지로 되였다. 삼수성은 방어에 유리한 지대고 또 적을 요격하기에 매우 편리한 지대였다. 당시 삼수 갑산 인민들은 엄동 설한풍 속에도 베 적삼에 초신을 신으면서도 의병들에게 광목과 무명 옷을 마련해 주었고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 온다, 불을 땐다 하면서 야단 법석이였다. 인민들은 의병대 파수가 강추위에 발을 얼굴까 념려하여 구운 돌을 발밑에 깔아 주군하였다. 한달 여의 기간 인민들은 의병들을 성심 성의로 돌보아 주었으므로 의병들의 사기는 더욱 충천하였고 어떠한 적이 침입하더라도 격퇴할 만단의 준비를 가출 수가 있었다.

때는 1907년 12월 31일 정오 경에 북청에서 상월(上月)이라는 일본 소위놈이 지휘하는 수비대와 갑산, 혜산 수비대가 합동하여 공격하여 왔다. 적은 수'적으로 우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전투에는 홍 범도를 잡는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참이였다. 아니나 다를가 통발'군의 통보대로 적은 삼수성을 향하여 사방으로 개미떼 모여들듯 기여 들기 시작하였다.

홍 범도 의병대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동문과 남문의 의병들에게 사격 준비를 명령하고 북문과 서문의 의병들에게 계속 후면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예견하였던대로 적들은 삼수성 앞강 어름을 타고 동문과 남문에 력량을 집중하여 바싹 성에 다가 왔다.

각일각 초조히 기다리던 의병들은 분노의 불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북문과 서문의 의병들은 적을 후면으로 불의의 타격을 가했다. 놈들은 당황망조하였고 무더기로 쓰러졌다. 전투는 해질 무렵까지 계속되였다. 사방에 땅거미 지자 간신이 구사 일생으로 살아 남은 적들은 어둠을 타서 도주하고 말았다. 삼수성 전투는 의병들과 인민이 혼연 일체가 되여 싸웠을 뿐만 아니라 홍 범도 의병 대장의 능란한 전투 지휘로 하여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홍 범도 의병 대장은 곧 대오를 수습하고 적의 대 병력이 침습할것을 예견하여 험산 준령을 넘어 갑산 방향으로 발'길을 옮기였다. 삼수성 패전에 일본 수비대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당시 동북 수비 관구 사령관인 환정(丸井)이라는 놈은 이번에는 홍 범도 의병대를 전멸시킬 소위<대병력> 작전을 시도 하였다. 북청 수비대는 물론 성진 수비대까지 동원하였으며 이도 부족하여 기병대까지 동원하여 으리으리한 병력으로 삼수성에 도착한 것은 1908년 1월 9일 추운 겨울 아침이였다. 그러나 성내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놈들은 이번에는 성에 대고 총 병력을 동원하여 일제 사격을 하였으나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때는 벌써 홍 범도 의병대가 갑산으로 떠난 후였다.

갑산에 당도한 홍 범도 의병대는 갑산 수비대가 삼수성에 가고 이 곳에는 약간 명의 병력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날 밤으로 갑산성을 습격하여 놈들을 완전히 처단해 버렸다.

그러나 갑산성은 방어에는 불리하고 적이 공격하기에는 유리한 평지대임으로 곧 이리사(二里社)지방 산중으로 이동하였다. 갑산성이 야밤에 습격당하였다는 정보를 받고 삼수성에서 놈들은 갑산으로 헐레 벌떡이면서 달려 왔으나 때

는 이미 늦었다. 놈들은 자기의 전술의 저렬성을 개탄하면서 닭쫓던 개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되였다. 그 후 홍 범도는 의병대를 다시 4개의 소 부대로 재 편성하고 단천 지방, 장진, 홍원 지방으로 나뉘여 활동하였다.

그의 총 지휘는 여전히 홍 범도 의병 대장이 담당하였고 도처에 신출 귀몰하면서 적을 기습하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놈들은 대 토벌과 함께 최후적인 악랄한 방법으로 의병대를 내부로 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달라 붙었다. 한 번은 김 원홍 이하 여섯명의 순사놈들이 귀순 공작으로 파견되여 왔다. 홍 범도는 놈들을 앞에 세워 놓고 《일본놈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조선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데 나를 그 놈들에게 귀순시켜 어떻게 하자는 수작이냐? 네 놈들은 나라도, 백성도 생각하지 않는 일본놈의 개다》라고 통절히 규탄하면서 즉석에서 처단하고 말았다.



이렇게 도처에서 일본 놈들을 전률케 한 홍 범도는 1910년 3월에 압록강을 넘어 현재의 장백현 왕개둔에 근거지를 잡고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불의에 적을 기습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렇게 홍 범도 의병대는 국내외의 가는 곳 마다에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적을 섬멸하고 승전고를 울림으로써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 정신과 억센 기백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어느 누가 먼저 불렀는지는 모르나 다음의 노래는 홍 범도 의병대의 눈 부신 활동을 생동하게 보여 주고도 남음이 있다.

• 홍 대장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랑한데
  왜적 군대 가는 길에는 눈과 비가 내린다.]
‖: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왜적군대 막 쓸어진다.
• 오련발 탄환에는 군물이 돌고
  화성대 구심에는 내굴이 돈다.]
‖: 후렴
• 피택이 원 성택 중대장님은
  산 고개 싸움에서 승리하였소.]
‖: 후렴
• 홍 범도 대장님은 도상리에 온
  왜적 수사대 열 한놈을 포살하였소.]
‖: 후렴
• 왜적놈이 게다짝을 목에 메고 동래 부산 넘어
  가는 날은 언제나 될까.
‖: 후렴

이렇듯 인민들의 지극한 사랑과 흠모를 받던 홍 범도 의병 대장은 1943년 10월 25일 애석하게도 해외에서 자기의 빛나는 일생을 마치였다. 홍 범도 의병 대장의 슬기로운 투쟁 업적은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혁명 연극



김 상태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직접 창조 공연된 혁명 연극은 군중 문화 공작의 가장 중요한 방식의 하나였다. 그것은 빨찌산 투쟁의 어려운 전투 환경 가운데서는 격동성이 강하고 기동성이 있는 예술 형태들을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로 하였는데 바로 이 혁명적 요구에 제일 적합한 예술 형태는 혁명 가요와 함께 혁명 연극이였던 까닭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연극은 무대적 형상을 통하여 관중들에게 현실 자체를 직접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화폭을 보여 줌으로써 비상한 공감을 자아내게하며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관중들 속에 침투되여 강력한 사상적 영향을 준다. 그러기에 항일 유격대원들은 말하기를 연극은 《가장 대중을 흡수하고 고동시키는 방식》이며《제일 높은 선전 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의 환경 속에서 종합 예술의 하나인 연극을 창조 공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들에게는 어떤 전문적인 작가, 배우, 연출가들이 있은 것도 아니다. 각본의 창작에서부터 연극의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 활동이 손에 직접 무기를 든 유격대원들 자신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연극을 창조 공연하는 것은 다른 예술 활동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일 유격대원들은 어떠한 곤난과 애로가 있어도 굴함 없이 인내성 있게 극복하여 나갔다. 각본은 대부분이 집체적 힘에 의하여 창조되였으며 창조 집단은 공연 중에도 부족되는 점은 시정하면서 연극의 사상 예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혁명 연극을 창조 공연하는 것을 혁명 임무 수행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에게는 연극의 창조 공연을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보장되여 있지 않았다. 강행군을 하면서도 대사를 외웠으며 휴식 시간이 되면 집체적 련습을 진행하군 하였다. 부락이나 성시가 해방되면 총구의 화약 냄새도 가시기 전에 유격대원들은 피곤을 무릅쓰고 예술 공작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연극만 하여도 《혈해》,《경축 대회》, 《성황당》, 《유언을 받들고》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창조 공연되였다.

그 중에서도 《혈해》(피바다)는 대표적 작품의 하나이다. 이 연극은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친솔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이 국경 지대에로 진출하던 시기에 도처에서 상연되여 인민 대중을 혁명 투쟁에로 궐기시킴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혈해》는 2 막 3 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제 1 막 제 1 장에서는 아버지가 항일 무장 대오에 참가한 혁명가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일제는 이 집에 대한 감시를 날로 강화하면서 어떤 단서를 잡으려고 사복 형사들과 밀정들을 보내여 위협 공갈한다. 혁명가의 가정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날로 강화되는데 맏 아들 원남이도 유격대에 들어 간다. 그는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 오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우리 손으로 찾아야 합니다.》라고 결심을 다지면서 떠난다. 원남이가 떠나자 일제의 탄압과 감시

는 더욱 강화되는바 이는 연극에서 갈등의 첨예성과 긴장성을 조성시키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적들에게 추격을 받다가 부상 당한 유격대원이 이 집에 피신하는 사실을 계기로 벌어지는 사건을 보여 주고 있다.

유격대원의 뒤를 추격하던 일제 경찰들은 원남의 동생인 나어린 을남의 가슴에 총을 겨누면서 유격대원의 행처를 밝히라고 위협한다.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아슬아슬한 장면 앞에서 어머니는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격대원의 행처를 모른다고 하면 을남은 놈들에게 희생될 것이 명백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니의 이 심정을 알아차린 을남은 《말하지 말아요 어머니!》하고 자기의 비장한 결심을 부르짖었다. 비록 나어린 아동단원이였지만 을남은 자기의 하나의 생명보다도 조국의 운명과 혁명의 위업이 더 귀중함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도 순간 당황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을 모르는 바 아니였다. 그래 을남이의 단호한 부르짖음 앞에서 어머니는 《정말 모른다.!》고 웨치면서 혁명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한다.

이때 한방의 총 소리와 함께 을남은 쓰러지고 어머니는 기절한다. 일제 경찰들은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 앞에 겁을 먹고 어린 소년을 쓰러 눕일 수는 있었으나 그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굽힐 수 없었다.

어머니와 갑순(을남의 누이)이는 을남의 시체를 안고 《피바다》가를 부른다.

설한풍 스산한 북간도
　피바다야
참혹한 죽음이 묻노니
　얼마냐
혁명에 피흘린 자 그 얼
　마나 되느냐.

무참히 죽은자 비참한
　그 형상
애달픈 대중의 가슴이
　터진다.
기막힌 이 원한을 천만
　죽어 못 잊으리

타십을 말어라 천백만
　근로자야.

혁명가 하나의 죽음의 피값으로
16억 7천만의 무산 정권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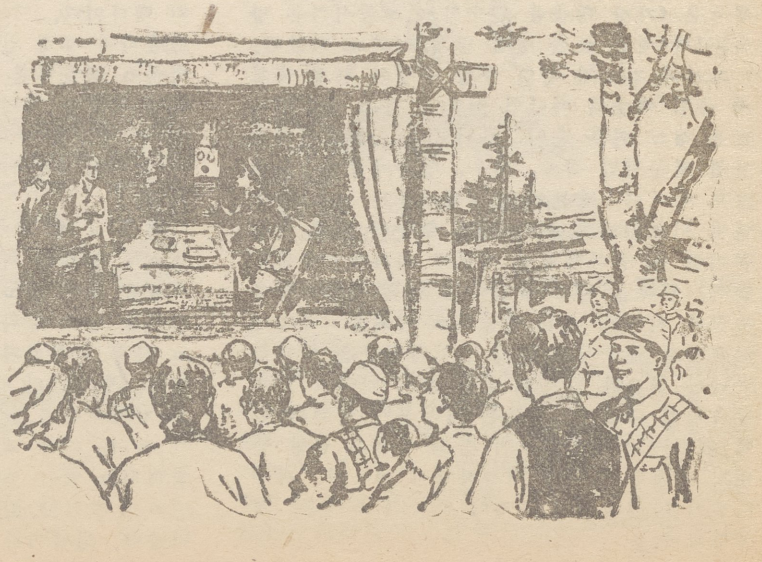
이 노래는 연극의 풍부한 사상적 내용을 집약하면서 극적 효과 속에서 비장하나 힘찬 노래로 울려 퍼진다. 관중들은 격분에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면서 유격대로 참가하는 그들 모녀와 함께《타도 일제》를 웨치며 참군할 기세로 충만된다.

제 2 막에서는 벌써 소대장이 된 원남이를 비롯한 유격대원들이 이 마을을 해방시키는 장쾌한 장면으로 충만된다.

보는 바와 같이 연극《혈해》는 항일 무장 투쟁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 각성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보여 주었으며 일제 침략자들의 어떠한 탄압 아래에서도 조국의 자유와 해방의 날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 연극이 공연될 때 마다 막이 내리기도 전에 관중들이 즉석에서 참군할 것을 탄원해 나서군 하였다. 《혈해》는 그의 사상 예술성으로 대중을 혁명 투쟁에로 궐기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1936년에 만강이 해방되였을 때 여기에서《혈해》를 비롯한 연극을 공연하고 예술 공작을 진행하였다. 이때의 인상을 당시의 한 정치 지도원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들은 만강을 해방하고 며칠 그곳에서 휴식하는 동안 매일 오락회를



조직하여 인민들을 위안하였다. 인민들은 <유격대는 어쩌면 싸움도 잘하고, 저렇게 놀기도 잘하고, 창가도 모두 명창이고 춤도 잘 추는지 참말로 모두가 재간'군이야>하며<피바다>(血海)를 보고는 극도로 적을 증오하였고<성황당>을 보고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웃었으며<경축 대회>를 보고는 새로운 승리의 신심을 가지였다…

뒤'이여<피바다>를 공연하였다. 1 막 2 장이 끝나자 군중 속에서는 흐느껴 우는 소리가 막뒤까지 들려 왔고 포로된 경찰 놈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관중들은 처음 보는 연극에 도취한 것도 있겠지만 강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만행을 직접 자기들 자신이 당한 피해자로써 침략자를 증오하는 격분으로 연극이 끝나자 <일본 제국주의 강도를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웨쳤고 침략자를 반대하여 총을 들 것을 탄원하여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무대 앞으로 나왔다.》

연극이 관중들에게 준 거대한 반향은 비단 《혈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극《아버지는 이겼다》, 《유언을 받들고》,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 《용진》,《10월의 결의》, 《춘보와 길남》 등 수다한 연극들도 그 높은 사상 예술성과 혁명적 락관주의 사상으로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의 암담한 시기에 인민 대중을 휘황한 승리에로 불러 일으켰다.

혁명 연극들 중에서 풍자 희극이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풍자 희극은 그의 독특한 예술적 기능으로 인하여 관중들의 주목을 끌었다. 풍자 희극은 주로 낡은 봉건 생활 유습과 낡은 생활 습성, 일제의 간악성과 그의 최후 발악을 폭로 조소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였다. 《웃음의 무기》-이는 항일 빨찌산들이 낡고 추악한 현상들과의 투쟁에서 사용한 중요한 사상적 무기의 일종이였다.

풍자 희극들 중에는 낡은 봉건 유습, 특히는 미신 타파, 강제 결혼의 부당성에 대한 주제들이 적지 않았다. 연극《성황당》(城隍堂)에서는 미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일인가에 대하여 조소하고 있다.

어느 날 성황당 앞에서 촌 부인이 제물을 가득 차려 놓고 명복을 빌고 있었다. 때마침 배가 몹씨 고팠던 나무'군 한 사람이 이 곳을 지나 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마침 잘 되였다고 생각하고 성황당 뒤에 숨어서 슬금슬금 제물을 집어 먹는다. 그런데 촌 부인은 이것을 정말 신의 령험으로 알고 더욱 기뻐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희극적 사건을 통하여 귀신은 세상에 없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하는 것을 조소하고 있다.

가벼운 조소와 유모아를 동반한 연극은 이외에도《홍수》, 《깨여진 죽자발》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극들도 주로는 봉건적인 낡은 인습의 속박으로 부터 인간의 해방, 특히는 남녀 평등을 주제로 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낡고 추악한 것을 《웃음》의 무기로 폭로 조소함에 있어서 엄격히 풍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각이한 태도를 취하였다.

가령 연극《게다짝이 운다》에서는 《성황당》과는 달리 풍자 대상에 대한 쓰디쓴 타격적인 조소, 멸시적인 증오에 찬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연극의 주인공(풍자 대상)이 관중들의 증오의 대상으로 조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풍자극에서는 유격대를《토벌》하며 갔다가 <산'귀신>이 된 왜놈 경찰서장의 처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가미다나》앞에서 그가 신던 게다짝을 치면서 우는 그들의 가련한 최후를 경멸적으로 조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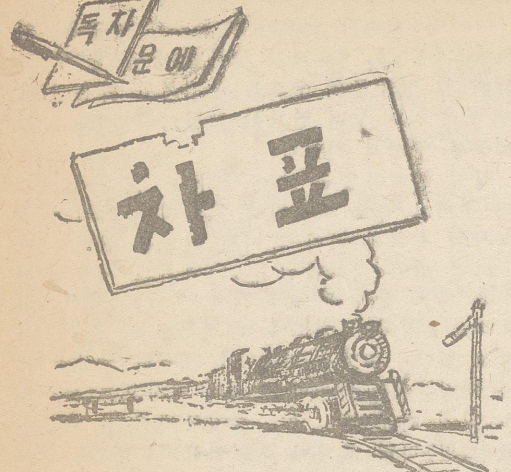
특히 연극《경축 대회》(慶祝大會)는 풍자 희극적 요소가 결합되여 있는 독특한 극적 구성을 가진 작품이다.

이 연극의 극적 구성은 매우 특징적이다. 즉 1 막과 2 막이 서로 대조되는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적아간의 심각한 갈등을 예리하게 보여주면서도 일제 군경들의 허장 성세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항일 빨찌산의 필승 불패의 위력과 기개, 약동하는 혁명적 랑만을 격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혁명적 연극의 형식은 다종 다양하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극 뿐만아니라 독 연극, 가면극, 창극, 가극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연극을 창조 공연하였다. 우리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단심'줄》은 음악적, 무용적, 극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여 조국의 해방에 대한 사상을 아주 생동하게 보여준 것으로서 특징이다.

이상에서 간단히 본 바와 같이 혁명 연극은 공산주의 리상을 힘차게 구현하였으며 특히는 손에 무기를 들고 일제 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공산주의 투사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연극사상에 새로운 발전 단계를 열어 놓았다. 또한 연극의 창조 공연에 있어서 집체적 지혜의 최대의 발양은 사실주의 연극 예술의 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문학 예술 건설에 있어서 귀중한 전통적 경험으로 된다.

혁명 연극에 구현된 혁명적 사상은 오늘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는 불씨로 타번지고 있으며 혁명 연극의 귀중한 창조적 경험은 오늘 우리 문화 예술의 전반적 발전에 있어서 귀중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



휴일이다.

경희는 아침 일찌기 서둘러 역전으로 갔다. 대합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차표를 산 경희는 차가 도착되기를 기다릴 예정으로 한쪽 의자에 앉았다.

대합실 안은 이야기로 꽃폈다. 공장 이야기에 신이 난 청년들, 오늘 교내 축구 경기에 누구를 문지기로 세울 것인가를 의논하는 학생들, 어린애를 안고 재롱을 피우는 어머니들,

어느덧 경희의 눈 앞에는 자기가 지난해 고등 기술 학교를 졸업한 후 조그마한 역에서 내려던 생각이 났다. 그새 집에 가면 얼마나 달라졌을가?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유치원에 다닐 귀여운 동생 송희, 인민반 일학년생이노라고 빼길 경호의 얼굴이 막 안겨 왔다.

《언니》, 《누나》하고 쪼르르 달려나와 치마'자락에 매달릴 동생들이 빨리 보고 싶었다.

《아마 함흥엔 다층 주택이 더많이 들어 섰을테지.》 경희는 이런 조급한 생각으로 차 시간을 기다렸다.

《려행하는 손님 여러분, 이제 칠분 후면 기다리던 평양—라진행 렬차가 도착 하겠습니다. 모두다 차에 오를 준비를 갖추고 개찰구에 정돈해 주십시요.》 스피카에서 이렇게 알리자 경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트렁크를 들고 천천히 사람들 뒤를 따랐다.

멀리 굽인돌이에 기차가 나타났다.

경희가 차표를 찍으려 할 때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정신 없이 뛰여 오는 것이였다.

경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 자리에 굳어졌다.

《체네 동무, 차표를 주오.》 중년 아주머니는 개찰원에게 무려대고 돈을 내밀며 소리치다 싶이 했다.

아주머니의 옷깃은 헤쳐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즐빈했다. 급히 뛰여온 탓인지 가쁜 숨을 몰아 쉬였다.

《늦었어요, 차가 도착되였는데…》 개찰원은 딱한듯이 우물 쭈물하는 것이였다.

《이걸 어쩐담. 아기의 병이 더 심해지는데…마을 병원에서는 큰병원에 가보라고 후송증을 줬어요. 여보 체네 동무! 거저래도 태워주오. 돈은 있으니…》자실 정차 시간이 1분 밖에 안되는 이런 작은 역전에서 차를 놓치기는 매우 쉽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몹씨 앓는 아기를 업고 있지 않는가. 어린 것은 몹씨 숨차서 가빠 한다. 일초도 지체될 수 없는 사정이다.

《어디 까지 가요?》 경희가 다가서며 물었다.

《함흥 병원까지요.》아주머니는 중심을 잃고 약간 비칠거렸다.

《함흥이요? 그럼 이걸루 오르세요.》 경희는 손'수건에 싼 차표를 서슴없이 내 주었다.

《아니 그럼 체네는…》 아주머니는 머뭇거렸다.

《일없어요. 차가 떠나기 전에…빨리요.》 경희의 눈은 재'별처럼 반짝이였다.

《이런 고마울데라구야.》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렬차에로 내 달렸다.

경희는 아주머니의 보'짐을 승강대까지 올려주었다.

《안심하고 가서 치료해요. 난 다음차에 가요.》 하고 아주머니를 안심시켰다.

기차는 천천히 홈을 떠났다.

경희는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손을 흔들었다. 아기의 몸이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경희는 대합실 장의자에서 짐을 내려 놓고 다음 차를 기다릴 작정으로 소설 책을 펼쳐 들었다.

함남도 흥상군 동봉리
한 동 국



새 집에 들다

정 룡 순

니스 냄새 향긋한
고래등 같은 집
내 이름 석자 크게 써
문패 높이 달았노라.

눈에 삼삼도 해라,
내 어릴적 자라던 오막살이
게딱지처럼 납작하던 집
밤이면 마당에 앉아서
조무래기들과 부르던 노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리 태백이 노던 달아
 초가 삼간 지어 놓고
 량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지고
 천년 만년 살고지고

아! 이는 수천년 세월을 두고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부르던 노래
우리의 어머니들이 부르던 노래
허나 오늘은 초가 삼간이 아니다.
벌방에 두메에 잇닿인 문화주택들

창문'가에 다가서면 한눈에 보인다.
두엄쌓인 들판이며 사과밭들이,
저기 어린 동생이 달려 오누나
건설대 아저씨들이 지어준 집이 너무도
 좋아서
가방을 달랑이며 손을 흔들며…

고마워라 당이여!
수상님 초상화 높이 모신
내 이집에서 량친부모 모시고서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리라!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리라!



편 지

황철 운수부 차량 직장
박 동 선

—직포기 두대나 더 맡았어요
필필이 짜고 짠 무늬 고운 비단천
오늘은 년간 계획 완수 했어요—
글'줄마다 자랑 넘친 누이의 편지.

엊 그제, 엊 그제는
—긴등'벌에 례년없는 대풍 들어
노적'가리 앞뒤'산 둘렀다는
아버지의 고향 편지를 받았더니

오늘은 누이가, 직포공 누이가
승리의 새 소식 띄웠구나
기대 사이로 천리마 휘장 번뜩이며
제비처럼 오고 갈 그 모습 떠오르누나

그러면 래일은? 모레는?
배'전이 떠들석 만선기 날리며
포구로 돌아오는 신포 친구의 바다
 생활일가

아니면 농촌 건설대장 동창생의 편질가

날마다 늘어가는 가족들과 벗들의
반가운 소식을 나는 받는다.
기쁜 마음으로 세차지 출선 끝내고
철강재 실은 화차를 손저어 보낸다.

아, 여섯 개 고지 점선과 점선을 잇는
삼백 예순 다섯 위훈에 찬 기적의
 나날이여!
풍만한 들에서 바다에서 노래로 전하는
행복한 생활의 찬가여, 위훈의 기록이여

전하고 전하자 혁명 초소들로!
생활의 크나큰 기쁨을 안고 노래를 안고
당의 결정 받들고
혁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1962 • 10,—

년 월 일 요일 ( )

생활과 일기

윤 시철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한 어린 때 부터 일기를 적어 온다. 매해 새 일기 책을 준비하는 것은 나의 큰 기쁨이다. 잊어 버린 지난 날의 사실을 알 필요가 생길 때, 지난 생활을 기억 속에서 더듬을 필요가 생길 때 낡은 일기 책을 뒤져 보게 되는데 이런 때 나의 일기는 지난 사실들만을 재생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활까지도 새로운 감정으로 다시 살펴 보게 한다.

나의 일기장에는 생활 기록만이 아니라 새로 읽은 책의 독후감,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의 첫 구성안들도 있다. 또한 려행시의 인상들, 처음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사연, 황홀한 감정으로 쳐다 본 자연 풍경의 묘사, 낯선 지방의 방언과 새 어휘의 기록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기장은 생활에서 받은 인상의 첫 기록이며 문학 작업의 첫 노트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이 경험은 일반성을 띨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쨌던 일기를 적는다는 것은 사회와 자연 현상을 관찰하며 인간들 속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만일 어느 누가 옹군 하루를 아무런 활동이 없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아무런 사색도 없이 보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일기란 바로 활동하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아니라 사회 생활의 변화 중에서 특기할 사항을 따라 가며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 맑은 날씨, 농촌의 가을날 아침은 신선하고 정결하기가 무어라고 표현할 바 말이 없다. 추수 작업 첫 날이다. 이른 새벽부터 작업 반원 전원이 떨쳐 나섰다.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최후 돌격전인 벼가을이 시작되였다. 풍년을 축하하듯 미풍에 펄럭이는 5색 기'발이 주룬히 꽂혀 있고 탐스럽게 영근 황금 이삭이 출렁이는 포전에 들어 서자 혁명 가요의 우렁찬 합창이 울려 왔다. 하늘은 티없이 맑고 작업은 아주 흥겨웠다. 농민 청년들과 섭슬려 노래와 웃음이 끊치지 않았다. 작업 실적도 예상 외로 높았다.

자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협동 농민과 붉은 대학생의 아름다운 협조, 즐겁고도 벅찬 로동, 누구나 다 열배, 백배의 열정을 내여 힘껏 마음껏 일했다…》

농촌에 동원된 한 대학생의 일기인 이 글은 자기 자신의 감정 생활 보다도 외부적인 생활 묘사에 더 치우쳐 쓴 서술체 일기의 실례로 된다. 인간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바로 이것이 표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다양하듯이 일기의 내용과 형식은 그보다도 더 자유롭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있다. 일기를 적는 립장과 심리적인 동기 여하에 따라서 각이한 내용과 각이한 형태로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일기이다.

《…만물이 깊이 잠든 속에서 단지 비내리는 소리, 흐르는 물소리만이 나의 마음을 흔든다. 나의 곁에는 친근한 벗이며 귀중한 전우인 리순근 동무가 앉아 있다. 순근 동무와 나는 1953년 동부 전선에서 함께 보낸 나날을 회상한다. …4월 16일 드디어 전선 탄원이 성취되여 가증스럽게도 원쑤들이 차지 하고 있는 351 고지 릉선을 바라 보며 배치된 부대를 찾아 걸어 가던 밤'길이…기총 사격이 비오듯 날아 오는 속을 뚫고 나간 야밤의 고지 탈환전…돌격 함성을 높이 웨치며 쏜살같이 달려나가 적의 화'점을 몸으로 막은 전우들…공화국 영웅으로 된 그들을 뒤 따라 고지에 오르며 바람에 펄럭이는 공화국 기'발을 고지 정'점에 높이 세운 순간의 감격이,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만세—를 고창한 그 순간의 흥분이 어제일인듯 떠오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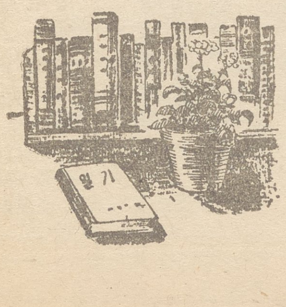
우에서 인용한 문장은 유명한 351고지 전투에서 용감성을 떨친 공화국 전투 영웅 리 정수의 일기중의 한 토막이다.

리 정수의 일기는 주로 잊을수 없는 지난 날의 회상에 대한 심정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썼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실례를 들수 있을 것이지만 요약하여 이야기 한다 면 일기는

- ○ 자신이 체험하였고 관찰한 생활의 정리와 기록을 위해서
- ○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검토 반성 결의와 계획을 위해서
- ○ 자기가 관심하는 문제(과학 기술의 탐구 학구적인 리론 문제의 연구, 문학 예술의 창작등…)혹은 그 어떤 사업상 문제에 대한 총화와 연구의 자취를 적어 두기 위해서 각이한 형태로 씌여진다고 말할 수 있다.

체험한 생활의 정리, 생활적 사실의 기록이라 하여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을 따라가며 적거나 기후의 변화, 기상과 취침 시간을 빠짐 없이 기록하는 정도 외의 딴 내용이 없다면 일기로서 적을 필요가 없을 것은 물론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적어 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일기는 어느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신을 향해 쓰는 글인만큼 체계를 세우고 그 이면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목적과 지향이 없는 인간 활동을 생각할 수 없드시 일기를 쓴다는 것 또한 일정한 목적과 지향이 없을수 없으며 목적과 지향이 있어야 하는 이상 그에 부합되게 진실하여야 할 것은 더 론의할 여지가 없다.

어느 한 청년이 로동과 학습에서 성실하며 사회에 대한 복무의 정신이 숭고하다면 그의 일기에 씌여진 내용 또한 성실하며 숭고할것은 틀림이 없다. 또한 어느 한 청년이 사람들에 대해 지극히 겸손하고 자기 희생적인 높은 도덕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예술을 깊이 사랑한다면 그 청년의 생활 기록인 일기의 내용 또한 그의 풍부한 교양 정서와 정신적 아름다움을 남김없이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한 사람의 일기는 그사람의 생활이 어느 정도 충실하며 의의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울과 같은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에는 거짓말을 쓰지 못 한다.

한 로동 청년이 있어 로동에서 혁신자가 되며 동시에 특수한 기술 부문 혹은 문학 창작의 전문가가 되려는 헐하지 않은 목적을 세웠다고 하자. 이 청년은 보통 청년과는 다른 긴장한 생활 조직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며 매일 매일의 생활을 스스로 검토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향한바 목적 리상의 실현을 위해 자나 깨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청년은 다른 청년들이 동무들과 즐거운 산'보를 하는 때 유쾌한 오락에 취해 있는 때에도 자기가 지향하는 목적, 과학 문학 창작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우릴 것이며 자기의 노력이 헛되지 말기를 충심으로 바랄 것이다.

만일 이 청년에게 하루의 생활을 심중히 검토하여 정리하고 새로운 실현 방도를 생각할수 있는 10분 혹은 30분 동안의 극히 짧은 시간이라 하여도 조용한 시간이 주어 진다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이 조용한 시간을 머리를 잡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향해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지는 가슴에 그득찬 감정을, 사상을, 눈에 떠올라 잊혀지지 않는 표상을, 인상 깊은 많은 사실들을 우선 자기 자신을 향해 고백하는 형식으로 적어 둔다면 그것은 그 순간의 안정과 기쁨만이 아니라 후'날의 큰 교훈으로도 되는것이다.

이런 경우의 일기는 바로 독서와 마찬 가지로 생활의 객관적 진실을 인식케하며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친절한 동반자의 역할을 하여 주며 동시에 자기의 사상 감정, 정서 생활 체험의 전 행정을 자기 스스로 검증케하는 습관을 배양하여 주며 사회적 인간으로서 단련 완성



시켜 주는 역할을 또한 노는 것이다.

하루의 생활을 끝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동무는 오늘 무슨 일을 하였는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없는가?》 하는 단순한 물음에 서슴 없이 대답하기위해, 생애의 마지막에 가서 《나의 전 생애는 자기 인민과 조국을 위해 인류의 행복을 증대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에 바쳐졌다.》 라고 부끄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보람있는 생활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 매일의 생활을 스스로 검증하는 맑은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일기인것이다.

특수하게는 우리의 귀중한 고전 《열하 일기》와 같이 불후의 문학 작품으로 남는 일기도 있는 것이다. 다른 경우 자기 자신의 생활 기록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 생활, 사회 현상의 전형을 일반화하는 형상적 수단에 의거한다면 일기체 형식의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도 응당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또한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의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 들어가서 일정한 론리적 체계를 세워 진리를 확증하는 방법에 의거 한다면 과학적 저술의 기초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관찰한바 생활 현상을 문장으로 정리하며 기록하는 이 작업은 문장력과 표현력을 배양하며 그 어떤 사물이든 주의하여 살펴보는 인식 능력과 습관을 부쳐주며 감득한 객관적 진실을 자기의 감정으로서 표현하도록 훈련한다.

이것은 일기를 씀으로 하여 얻어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리득이다. 즉 일기는 자기의 생활을 자기 스스로 검증케 하는 맑은 거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감정, 정서를 키우고 사상을 단련케 함과 동시에 생활을 인식하는 능력, 습관, 생활에서 받는 충동, 객관적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귀중한 능력까지도 배양하여 주는 것이다.

《나는 이 몇 해 동안에 독서란 부질 없이 읽기만 하여서는 하루에 천백번 되풀이한다고 하더라도 읽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무릇 독서할 때에 한자라도 그 뜻을 잘 모를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세심히 연구하여 그 근원을 밝히며 이에 대한 자기 견해를 써 두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이와 같이 한다면 한가지 책을 읽고도 백가지 책을 본 것과 같은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정 다산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

★ ★

박인로의 시조 2 수

만구를 늘어내여 길게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 매여
북당의 학발 쌍친을 더디늙게 하리이다。

※ 만구(萬勾)=일만 개의 갈구리
학발 쌍친(鶴髮雙親)=늙으신 두어버이

벗을 사필진댄 유신케 사괴리다、
신없이 사괴며 공경 없이 지낼소냐
일생에 구이경지를 시종 없게 하오리다。

※ 유신(有信)=신의 있게
구이경지(久而敬之)=오래 오래 공경하여
시종(終始)없게=한결같게

겨울철의 육체 단련



추운 날씨가 대체로 3~4 개월간 계속되는 우리 나라의 겨울철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신체를 단련시킴에 있어서 매우 좋은 계절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어떠한 추위나 불리한 외부 환경에도 능히 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신체를 단련하여야 한다. 겨울 철의 신체 단련은 내한력을 배양하여 줌에 있어서나 정상적인 체온을 보장하여 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 증진에 있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우리들의 몸은 주위 환경의 기온이 심히 변화되는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항상 일정한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단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때에만 더 높아질 수 있다.

일정한 체온은 중추 신경 계통이 열 형성 과정과 열 발산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런데 몸이 튼튼한 사람은 이와 같은 조절이 잘 되며 랭자극 (추위가 몸을 자극하는 것)이 계통적으로 반복 작용할 때에도 신경 계통이 잘 활동하고 따라서 내장 기관들의 활동도 강화되여 물질 대사 과정이 촉진됨으로 추운 곳에서도 열 형성 과정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때에는 피부에 수 많이 분포되여 있는 모세 혈관들이 축소되여 열의 발산이 미약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리하여 단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운 곳에서도 몸이 지나치게 차지지 않기 때문에 감기를 비롯한 질병들을 능히 쉽게 방지 할수 있다. 그러나 추위에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랭 자극에 대한 공고한 조건 반사가 형성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신경 계통이 열 형성 과정과 열 발산 과정을 잘 조절할 수가 없으므로 감기에 비교적 쉽게 걸리게 된다.

추위를 이겨 낼 수 있는 체온을 보장하지 않으면 섭취한 영양물들이 신체 활동 보다 추위를 막는데 더 많이 소비 됨으로 몸은 자연히 약해지고 원기를 잃게 된다.

그러면 겨울 철에 신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체육 운동 종목들이 효과적인가?

그것은 스키, 스케트 등 동기 체육을 비롯한 많은 종목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누구나가 참가하여 쉽게 군중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집단 달리기는 겨울 철에 신체 단련을 위한 좋은 수단이다.

집단 달리기는 주로 기상 후 또는 출근하여 본신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게 되는 《조기 체조》 시간과 점심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들의 실천적인 경험이 잘 말해 주는 바와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달리기는 다리의 힘과 함께 질주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골격 관절 및 근육의 정상적인 발육을 촉진 시키고 유기체의 균형성을 보장하여 주며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에서의 민활성과 기민성을 보장하여 준다. 또한 신경 계통, 소화 기관의 활동을 강화하며 물질 대사 과정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유기체의 전반적인 저항력과 로동 능력을 제고시켜 준다. 특히 집단적인 달리기는 인내성, 조직성, 규률성 등 고상한 도덕 의지적 품성도 훌륭하게 배양시켜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기를 모든 체육 운동의 기초라고 하며 《왕》이라고 한다.

기상 후 진행하는 달리기를 위

해서는 팔, 다리, 목, 몸통, 등배 운동과 특히 발목, 관절, 및 슬관절 그리고 관절을 충분하게 운동시키는 방향에서 준비 운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옷은 가볍게 입고 전신이 훈훈하여 질 때까지 천천히 달려야 한다. 달릴 때 호흡은 반드시 코로 할 것이며 끝난 다음에도 정리 운동과 함께 조기 청소와 세면을 하는 것이 좋다.

집단 달리기는 먼저 인민 보건 체조 또는 천리마 체조를 1~2회 진행한 다음 직장 또는 작업반 단위로 작은 사람을 선두로하고 3렬 또는 4렬 종대로 달리는 것이 좋다. 달릴 때는 반드시 상의와 모자를 벗어야 하며 말을 하지 말고 발을 맞추면서 정확한 자세로 달려야 한다. 집단 달리기에서 《만경대, 보천보, 백두산, 평화 달리기》, 《혁명 전적지에로의 달리기》 등을 쉬지 말고 진행할 것이다.

집단 달리기의 거리는 보통 1키로메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성별과 년령적 차이, 직종별 특성, 육체적 준비 정도에 따라 거리를 각이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점차 숙련됨에 따라 달리는 거리를 연장하여야 한다.

아침 《조기 체조》 시간에 달리기는 방금 식사한 것을 고려하여 될수록 천천히 가볍게 진행하여야 하며 점심 시간에는 식사전에 달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달리기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정리 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달리기와 함께 랭수 마찰이 신체 단련에 유익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랭수 마찰을 중단 없이 계속하게 되면 내한력을 배양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신진 대사 과정을 왕성케 함으로써 건강에 좋다. 랭수 마찰은 초가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의 방법은 먼저 간단한 도수 운동을 하고 수건을 물에 적시여 흉부로부터 먼 부위들인 얼굴, 팔, 목, 다리, 배등의 순차로서 피부가 붉게 될때까지 문지른다. 마찰이 끝난 다음에는 마른 수건으로 수분을 닦아야 한다.

다음으로 등산 및 강행군, 설상 행군도 겨울 철 신체 단련에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등산 및 강행군, 설상 행군은 하루의 기본 사업을 끝마치고 난 다음 또는 휴식일을 리용하여 군사적 성격을 띠게 조직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하여 대렬 편성을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하고 각각 지휘관과 위생병을 임명한다. 그리고 모자와 정복을 착용하고 가능하면 배낭과 화식 도구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출발에 앞서 지대에 대한 사전 료해를 선행시키면서 충분한 준비 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일체 준비품을 소대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행군의 목적과 행군 로정에서의 주의 사항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겨울철 청년들의 신체 단련에 중요한 것은 스케트와 스키이다.

모든 청년들이 빙상 운동에 익숙하게 스케트를 탈 수 있어야 한다. 스키를 탈수 있는 지대에서는 스키 경기도 광범히 조직하여야 한다.

이 운동들은 일정한 기자재가 요구됨으로 사전 준비 사업을 잘 하여 각 자가 모두 가능한 기자재를 마련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당과 정부로부터 건강을 증진하고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 받고 있다. 문제는 매개 청년들이 신체 단련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당의 체육 정책을 여하히 관철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신체 단련을 위한 제반 조건이 백방으로 구비되어 있는 오늘 감기를 비롯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시라도 리탈되는 것은 천리마 시대 청년들의 수치이다. 때문에 청년들은 겨울철에도 그의 기후 및 자연적 제 조건에 적응한 여러 가지 운동을 조직 진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신체를 보다 튼튼히 단련하여야 한다.

평양 체육 대학 리론 강좌

함 철 린

11호 현상 문제 해답

어선의 수는 5척이며 동원된 인원은 23명이다. 즉 한 척의 어선에 4명의 로력이 붙으면 23−(4×5)=3명이 남고 5명의 로력이 붙으면 23−(5×5)=2명이 모자란다.

《청년 생활》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전화 (38—58, 83—85)
1962년 12월 10일 인쇄 1962년 12월 15일 발행
ㄱ—230776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영웅적인 큐바 인민들은 걸출한 애국자이며 자기들의 위대한 수령인 피델 카스트로 수상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강도적 침략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 나섰다.





21

8314 Чхон'нен сянхваль



ЦЕХ 1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314